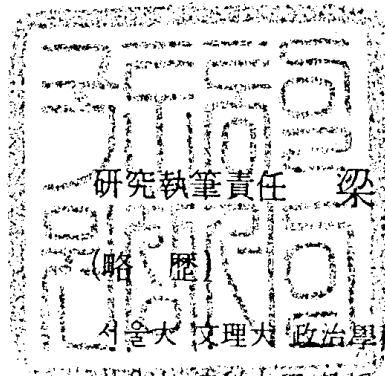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政治

# 北韓主体思想理論体系研究

A STUDY OF THE "IDEA OF JUCHE" IN NORTH KOREA



研究執筆責任 梁 好 民

(略 歷)

서울대 文理대 政治學科卒 (194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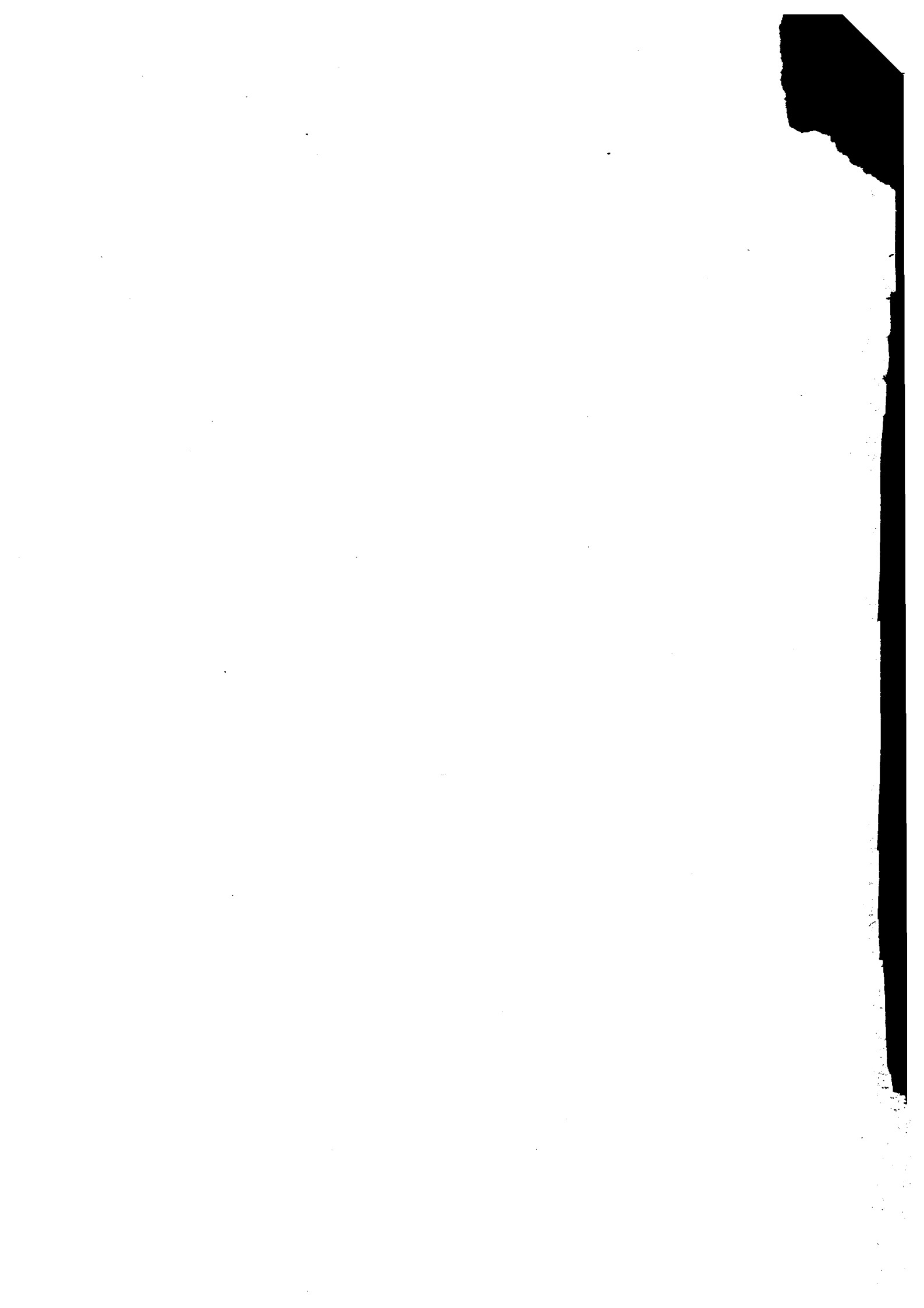
서울대 法科大學 教授 歷任 (1963~1965年)

美國芝加哥辛頓大學校 中・蘇問題研究所 및 프린스톤大學校 東亞學部에서 研究 (1968~1970年)

朝鮮日報社 論說委員兼 同社 統韓問題研究所 所長 (1965年~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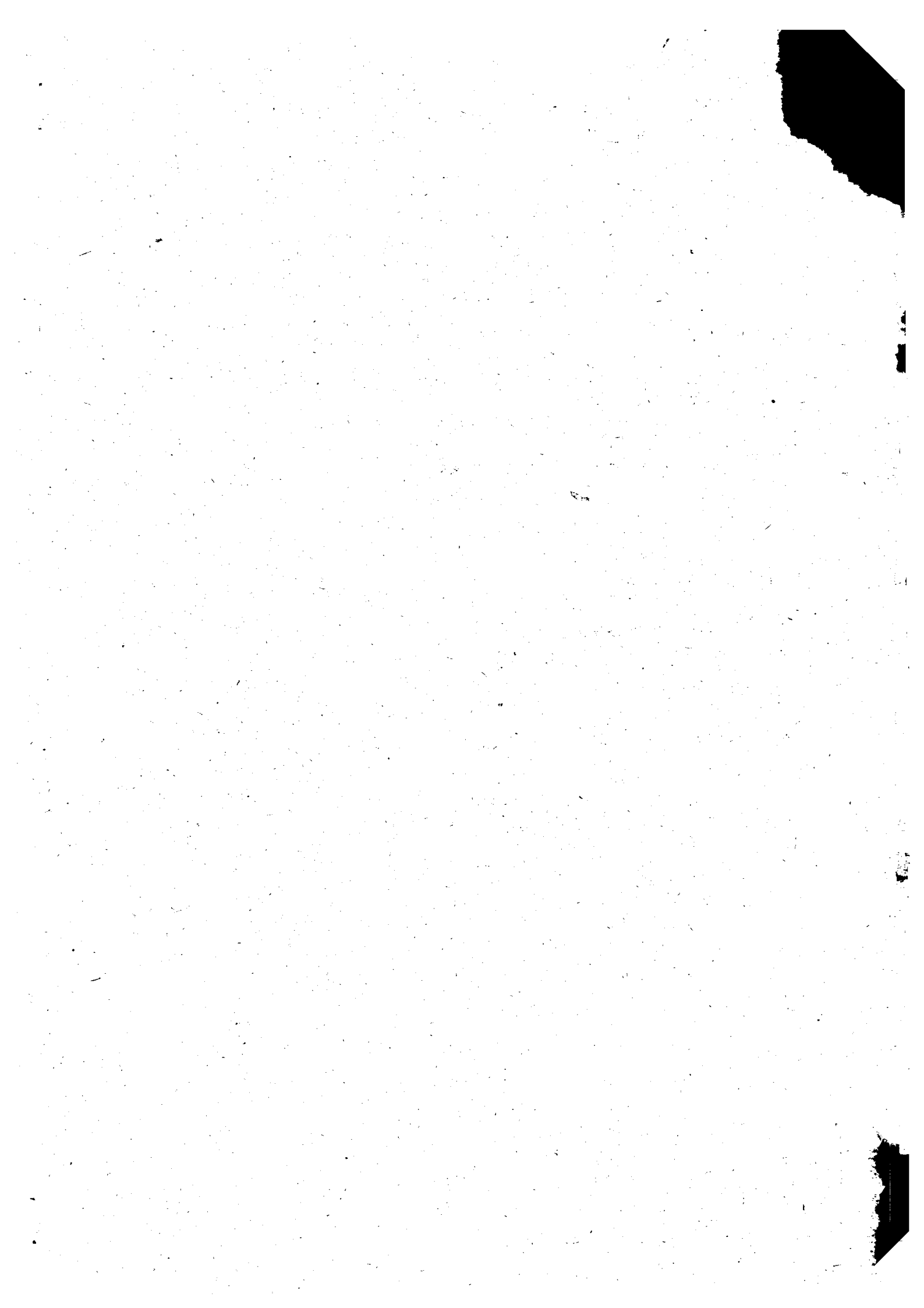
刊 行 責 任 吳 長 祿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要 約 .....	3
第一章 <主体思想 出現>의 狀況 .....	9
(1) 國際共產主義運動 內部的 變動 .....	9
(2) 對內的 權力鬭爭의 要請 .....	20
第二章 主体思想의 圖式 .....	33
(1) 思想, 政治, 經濟, 國防에서 .....	33
(2) 中·蘇紛爭속에서 .....	57
第三章 <主体思想> 展開의 方向 .....	71
- 金日成 個人崇拜의 統一戰略 - .....	71



## << 要 約 >>

### 北韓의 主体思想 理論体系 研究

#### 第一章 <主体思想 出現>의 狀況

金日成이 「主体」의 確立을 党内에서 公的으로 처음 提示한 것은 1955年 12月 28日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自主路線」으로써 对外的으로 宣言한 것은 1966年 8月 12日 「로동신문」社說에서였다.

金日成이 처음 主体를 말했을때 이것은 하나의 未成熟狀態의 의식이요, 상념에 不過했다. 그러나 그후 時日의 經過와 더불어 이것은 具體的 內容을 담게되고 理論的으로 다듬어지고 体系化되면서 이른바 「主体思想」으로 展開되었다.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本來 自己의 權力을 擁護·強化하려는 이데올로기上的 武器로 登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对內的 要請은 國際共產主義運動內的 狀況變化라는 对外的 契機와 不可分の 교착關係를 形成하고 있었다.

金日成의 「主体」路線은 1953年 스탈린의 死亡, 그後 蘇聯內에서의 一大 政治的 變化, 1956年の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 中·蘇紛爭과 共產圈의 多元化, 그리고 이 모든것을 反映한 「朝鮮勞動黨」內的 權力鬭爭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은 스탈린의 死亡을 週期的인 始點으로 하여

單一中心支配體制에서 多中心의體制로 바뀌어 나갔다. 그리하여 맑스-레닌主義의 多樣한 解釈, 多樣한 適用, 多樣한 主張을 試圖하는 多樣한 共產主義 나라들과 共產黨들이 全世界的 規模로 出現하게 되었다.

單一中心, 單一組織의 統一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은 깨지고 多中心의 民族的 共產主義運動이 出現하게 되었다.

國家權力을 掌握한 여러나라의 共產主義者들은 맑스-레닌主義의 普遍的 敎의에 대한 忠實性을 公言하면서도 同時에 한 特定한 國家의 指導者로 行세하고 싶어했다. 이들은 自己民族의 固有한 文化와 歷史를 強調했다. 이것은 國民들의 支持를 얻는 질이기도 했다.

또 작은 나라의 共產黨들은 中·蘇 2大 共產主義國家 사이의 紛爭 속에서 独自の 行動을 取할 수 있는 一定한 餘地를 發見했다.

베오그라드, 부크레슈티, 하노이, 평壤, 아바나 등은 그 独自の·自主的 立場을 내세우면서 制約된 範圍에서나마 각각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소중심이 되려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이러한 時代的 推勢를 따라 自身の 独自の 이데올로기, 黨 닛 政治權力을 追求해 온 것이 바로 金日成의 「主体」의 確立過程이다.

金日成은 또 6.25 動亂後 表面화된 党内權力鬭爭에서 南勞系, 蘇聯派, 延安派를 除去하고 스스로를 正当化하는 思想的 立場의 確立을 必要로 했다.

## 第二章 主体思想의 圖式

金日成은 「主体思想」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理論的 體系를 세웠다. 그래서 나온것이 「思想에서의 主体」「政治에서의 自主」「經濟에서의 自立」「国防에서의 自衛」이다.

그러나 이러한 圖式은 심오한 哲學的 意味를 바탕으로 한것도 아니고 어떤 獨創性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金日成 「主体思想」이란 一貫性있는 確固不動한 理論이던 을라도 그 內容은 对内外的 与件과 그의 獨裁強化的 必要에 따라 便利하게 變更되고 造作되는 것이다.

「思想에서의 主体」는 人間을 思想的으로 改造하기 위한 指針이다. 이것은 1955年 12月 28日 金日成이 「党宣傳煽動일꾼들」 앞에서 演說하는 가운데 最初로 提起되어 1966年 金日成이 「党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일꾼」들 앞에서 演說할때 거의 定立을 볼 것이다.

金日成은 『사람들을 革命化한다는 것은 個人의 利益을 버리고 党과 革命을 위하여 大衆을 위하여 人民을 위하여 팔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려는 강한 意志를 가진 革命家로 만든것을 말한다』고 그가 要求하는 人間像을 設定했다.

그는 온社會를 主体思想化하는것을 北韓政權의 最終目標라고 設定하고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的人間」으로, 온社會를 主体思想의 要求대로 徹底히 改造할것을 다짐했다. 그렇게하여 北韓을 「思想的要塞」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政治에서의 自主」는 内部的 權力鬭爭과 中·蘇理念紛爭속에서 金日成이 生存의 길을 찾기위해 「創造한」 것이다. 그는 宣傳事業의 欠陥의 責任을 反對派에 귀집어 죄우고, 中·蘇紛爭의 餘波가 北韓에 미치는것을 避하기 위해 「政治에서의 自主」를 내세웠다.

「經濟에서의 自立」은 金日成이 社會主義國家에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建設하는것은 政治的 自主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에서 構成한 것이다.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을 처음에는 흐루시초프時代의 蘇聯이 經濟援助를 口實삼아 內政干渉을 試圖한데 對한 衝擊에서 認識했으나 그後에는 韓國을 攻擊하고 東歐의 「修正主義者」들을 非難하는데로 擴大 適用해 왔다.

「國防에서의 自衛」는 國防分野에서도 自力更生の 革命的 原則을 貫徹하여 自衛力을 더욱 強化위해 確立된 것이다.

北韓은 이를위해 이른바 4大軍事路線 (①全軍幹部化, ②全軍現代化 ③全民黨徒化 ④全國要塞化)을 採択했다.

그러나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中·蘇紛爭이 繼續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시련 내지 威脅을 받아왔다. 그의 主体思想은 出現때부터 中·蘇 兩共產大國의 非위를 거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中·蘇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親善의 제스추어를 쓰면 다른 나라로부터 警戒의 눈총을 받았다.

그는 中·蘇紛爭이 더욱 深化함에 따라 더욱 괴로운 경지에 빠졌다.



그러나 中·蘇는 北韓을 徹頭徹尾로 끌어들이려는 競争을 벌여왔기 때문에 金日成을 출타기 外交로 그의 「主体思想」을 維持하고 있다.

### 第三章 主体思想 展開의 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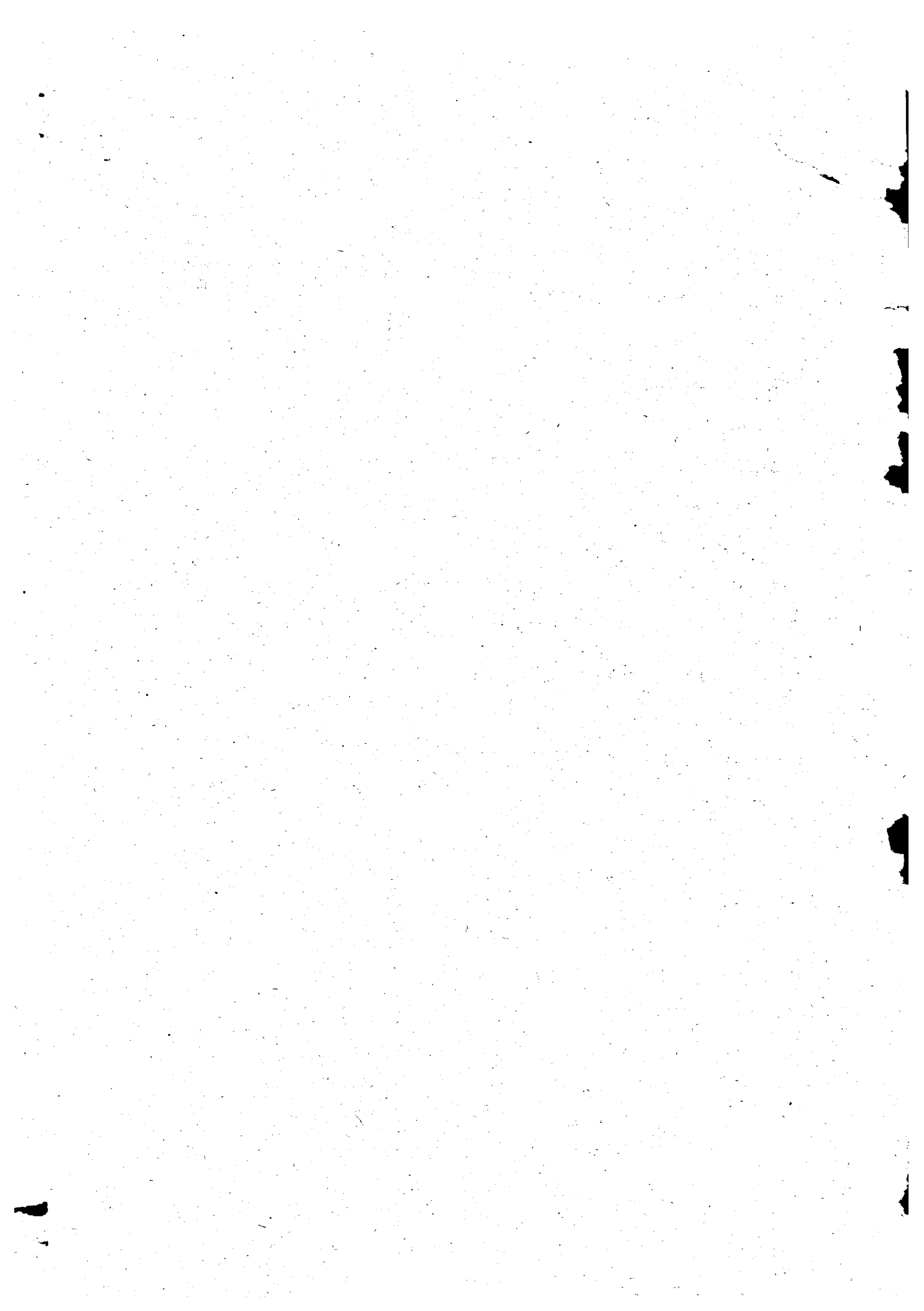
北韓의 金日成 崇拜들은 金日成이 「主体思想을 創始」했다고 宣傳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金日成을 世界革命史의 頂點에 다 추대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기원을 그의 少年時節에까지 소급시키면서 날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革命의 天才」로 또 「가장 創造的인 맑스-레닌主義의 思想家·理論家로 불가오류성을 實證해온 偉대한 수령」으로 偶像化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에 관한 宣傳事業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뿐만아니라 유럽과 日本 등 先進國에서도 積極化되어가고 있다.



## 第一章 <主体思想>出現의 狀況

### (1) 國際共產主義運動 內部的 變動

金日成이 <主体>의 確立問題를 党内에서 公的으로 처음 提示한 것은 1955年 12月 28日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自立路線>으로써 對外的으로 宣言한 것은 1966年 8月 12日 字 <<로동신문>>社說 <自主性を 擁護하자>에서 었다. 金日成이 對內外的으로 <主体>路線을 公言하기 까지는 1953年 3月의 스탈린死亡, 그後의 蘇聯內의 一大政治變化, 1956年 2月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 이것을 契機로 發生한 中●蘇紛爭과 共產圈의 多元的 分裂, 그리고 이 모든것을 反映한 朝鮮勞動党内의 權力鬭爭이라는 일련의 事態를 거치고 있었다. 金日成이 처음 <主体>를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未成熟狀態의 意識이요, 想念에 不過했다. 그러나 그後 時日의 經過와 더불어 이것은 具體的 內容을 담게되고 理論的으로 다듬어지고 體系化되면서 이른바 <主体思想>으로 展開되었던 것이다.

<主体>問題를 처음으로 提示한 10年뒤에 金日成은 說明하기를 <우리党的 主体思想은 우리革命과 建設을 成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가장 正確한 馬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며 人民共和國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sup>①</sup>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主体思想>은 一黨獨裁下의 北韓人民들을 思想的으로 劃一化하고

註(1) <<金日成著作選集>> 4, 平壤, 1968年, p.533.

理論的으로 編制化하면서 經濟建設과 軍事力強化에 總動員하는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立되게 되었다. 金日成에 의하여 定式화된 <唯一思想體系>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黨의 唯一思想이란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立,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의 原則으로 일관된 우리黨의 革命思想입니다. 우리黨의 이 思想은 朝鮮革命을 完成하고, 우리人民을 社會主義, 共產主義에로 가장 올바르게 이끄는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된 馬斯-레닌主義입니다. ②

이러한 <主体思想>은 1972年 12月에 制定된 北韓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에까지 挿入되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馬斯-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第4條)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곧 金日成의 <主体思想>이 中共에서의 毛沢東思想과 마찬가지로 絶對化, 唯一化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主体思想>이 絶對化, 唯一化되었다는것은 그의 全体主義 獨裁權力이 完壁하게 確立되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全体主義社會에서는 政治權力은 獨裁者의 이데올로기의 絶對化, 唯一化와 더불어 確立되기 때문이다.

本來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스탈린의 死亡 및 韓國休戰을 契

註(2) <<金日成同志약전>>, 平壤, 1972年, p.777에서 引用

機로 노정된 國內派, 延安派, 蘇聯派와의 兇權鬪爭에서 金日成이 자  
가의 權力을 擁護 強化하려는 이데올로기상의 무기로서 登場한 것  
이었다. 즉 主体思想은 對內的 權力鬪爭의 戰略上的 要請에 따라  
出現했다. 그러나 이러한 對內的 契機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  
을 거쳐 中·蘇紛爭과 共產圈의 大分裂에 이르는 國際共產主義運動  
內의 狀況變化라는 對外的 契機와 不可分の 交錯關係를 形成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主体思想>을 出現케한 國際共產  
主義運動內部的 變動에서부터 考察하기로 한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은 스탈린의 死亡을 劃期的인 始點으로 하여 이  
른바 一中心支配體制 (monolithism)에서 多中心의 體制 (polycen-  
trism)로 바뀌어 나갔다. 그리하여 레닌이 創始하고 스탈린에  
의하여 公敎化되었던 콰민테른型의 單一的 權威의 中心, 單一的 國  
際組織, 單一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嚴格하게 統制되는 統一的 運  
動으로서의 國際共產主義는 終末을 告하고 맑스-레닌主義의 多様한  
解枳, 多様한 適用, 多様한 主張을 試圖하는 多様한 共產主義나라들  
과 共産黨들이 全世界的 規模로 出現하게 되었다.

統一的 國際共產主義運動은, 모스크바와 北京의 2大共産黨, 中·蘇  
의 2大共産黨國家가 벌이는 헤게모니鬪爭에 의하여 모스크바型志向,  
北京型志向 또는 獨自型 志向의 黨과 國家들에 의하여 多元的으로  
分裂되어 왔으며 하나로 뭉친 이른바 <社會主義障營>은 消滅되게  
되었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은 1919年에서 1943年 까지는 레닌과  
스탈린의 콰민테른을 통하여,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는 스탈린揮下의

소베트古領軍과 蘇聯秘密警察의 嚴格한 中央集權的 統制에 의하여 統一性이 維持되어 왔다. 그리고 世界共產主義運動의 超國家-民族的 國際主義는 名分뿐이오 사실은 運動全体는 蘇聯의 安全과 國家利益, 蘇聯政府의 外交政策에 철저히 服務하는 道具로 轉落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支配에 반기를 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1948年 콤폴린포름(Cominform)에서 追放된後 自主的인 社會主義 路線을 追求하게 되었을 때 單一中心의 統一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기반은 깨지고 各國黨의 自主性을 基礎로 하는 多中心의-多元的 體制가 出現하리라는 徵兆가 나타났던 것이다.

티토를 最高指導者로 하는 유고슬라비아의 共產主義勢力은 毛沢東 指導下의 中國共產黨과 마찬가지로 政治權力을 蘇聯解放軍에 의하여 물려받지 않고 独自の 革命鬭爭에 의하여 掌握했다. 이들은 革命鬭爭에 있어서 모스크바로 부터의 戰略-戰術上의 支持를 오히려 무시했다. 自主性을 견지했던 티토와 毛沢東만이 政權 樹立後 모스크바에의 追從을 먼저 拒否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重要한 歷史的 意義를 갖는다. 이 나라들은 自力에 의한 武裝鬭爭으로 革命에 成功한 例에 속한다. 이 나라 共產主義者들이 蘇聯으로부터 약간의 援助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革命은 이른바 外部(蘇聯)으로부터 強要된 革命은 아니었다. 이런 나라의 범주에는 엔베르 호자의 알바니아와 그後의 越盟, 쿠바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北韓과 東歐諸國(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除外)의 共產黨政權은 모두 蘇聯軍을 背景으로 強要한 革

命의 결과였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要컨대 自力으로 革命을 수행한 者만이 먼저 外勢의 支配에 저항하는 自主精神을 보일 수가 있었다. 만일 티토와 毛沢東이 自主적으로 政權을 獲得한 歴史的 事例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國際共產主義의 多中心의 體制를 유도한 後의 事件들은 하나로 發生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로벤탈 (Lowenthal)의 解釈에는 充分한 妥当性이 있다.<sup>③</sup>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모스크바의 支配體制의 崩壞는 티토의 반란으로 금이 가기 始作한데서 由來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重要한 決定的인 事件으로는 스탈린死亡後 蘇聯에서는 그에 比할만한 높은 權威와 간교한 統制力을 갖춘 指導者가 出現하지 못했다는 것, 광대한 中國大陸이 共產化되어 世界第2의 共產主義大國으로 登場했다는 것, 그리고 1956年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를 起點으로 始作된 非스탈린化運動이 흐루시초브의 기대와는 달리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反蘇叛亂을 일으켜 蘇聯의 對東歐諸國에 대한 政策轉換을 強要했던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若干의 說明을 加할 必要가 있다.

世界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莫強한 權威를 公認받고 있었을. 뿐만

---

註(3) Richard Lowenthal, "The Rise and Decline of International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XII No. 2, Mar-Apr. 1963. 參照

아니라 神格化되고,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產主義國家와 非共產主義國家의 共產黨들에 대해 絕對權力을 행사해 온 스탈린이 國際共產主義舞臺에서 사라지자. 單一的 共產主義運動이 一大混亂에 빠질 것은 必然的이었다. 말하자면 統制의 사슬의 中心고리가 끊어진 것이었다. 混亂은 스탈린이 死亡한後 蘇聯共產黨內에서 그에 비견할만한 指導者를 發見할 수 없었던 點에서 加重될 수 밖에 없었다.

말렌코프도 흐루시초프도 스탈린의 衣鉢을 계승하여 그가 建設한 世界帝國을 安全하게 統治하기에는 너무나 權威가 미약했다. 그 위에 흐루시초프는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의 秘密演說을 통하여 스탈린의 지난날의 暴政을 暴露하고 個人崇拜의 해독을 攻擊함으로써 스탈린은 일거에 神의 地位에서 惡魔의 地位로 転落했고 國際共產主義運動에는 權威動搖의 危機(authority crisis)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批判은 스탈린에 관한 不可誤謬性의 神話를 破壞했고, 그 結果로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蘇聯共產黨의 正確 完璧한 指導에 대해 各國 共產主義者들이 지녔던 信仰을 일거에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 <偉大한> 스탈린마저 그런 誤謬를 犯했다면 그 後繼者들이라고해서 犯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흐루시초프는 스탈린批判으로 各國 共產黨들의 이러한 疑惑을 誘發함으로써 自己自身 스탈린과 蘇聯共產黨의 傳統的 威信을 繼承할 수 있는 機會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스탈린의 後繼者들은 스탈린時代의 공포와 暴政, 레오리즘과 個人



偶像化에 終止符를 찍고 社會를 制限된 範圍 안에서나마 <自由化> 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衛星國들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스탈린的 絶對支配와 命令-盲從關係를 大幅 緩和하고, 단지 社會主義共同體 안에서 蘇聯의 指導權을 維持하는 方向으로 修正하려 했다.

그러나 흐루시초브의 非스탈린化政策에서 유래한 權威의 國際的 真空狀態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單一的 組織과 劃一的 이데올로기의 解体를 가져온 決定的 要因이 된 것이다. 흐루시초브의 非스탈린化運動은 우선 東歐諸國에 다 심각한 衝擊을 주어 폴란드에서는 1956年 6月의 보즈난暴動과 10月의 反蘇政治危機를 초래했다. 그리고 同年 10~11月에는 헝가리에서 共產主義者들을 包含한 反蘇叛亂을 일으켰다. 蘇聯은 폴란드事態는 스탈린主義者들의 죽술로 무마하고, 헝가리革命은 武力으로 鎮壓할 수 없었다. 그러나 東歐 衛星國들이 自主權을 熱望하는 時代的 大勢는 막을 수가 없었다.

한편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는 中-蘇紛爭이라는 國際共產主義陣營內的 大分裂을 초래한 劃期的 事件으로 되었다. 흐루시초브의 스탈린批判과 스탈린格下運動은 全世界에 다 큰 파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北京 사이에 다 世紀的인 이데올로기 論爭을 誘發시켰던 것이다. 두 共產主義巨國이 각각 相對方을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배신자라고 규탄하는 攻防戰 속에서 戰爭과 平和問題, 帝國主義의 本性,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方法, 民族解放戰爭에 관한 戰略과 戰術,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本質 등 現代共產主義의 모든 理論的 問題들이 論爭의 대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

나 論爭이 進行되는 동안 그 本來의 性格과 의미는 變化擴大되게 되었다. 결국 中·蘇의 論爭은 對立을 낳게 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指導權을 다투는 一大權力鬭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 鬭爭에서는 두나라의 國家利益上的 對立이 이데올로기의 紛糾과 交錯되었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優위를 표방해온 共產圈內에서 國家主權의 問題, 國境問題, 民族問題가 重要視되게 되었다.

中·蘇의 이데올로기論爭은 단순한 國家的 勢力鬭爭을 맑스-레닌主義의 用語로 위장한것만은 물론 아니었다. 이데올로기는 手段이요 實利가 中·蘇紛爭의 內容이라는 단정은 共產主義者들의 權力鬭爭의 特徵을 평가한 것이다. 中·蘇紛爭은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出發하였고 對立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것은 黨과 黨의 政治鬭爭, 國家와 國家의 利害鬭爭으로 擴大된 것이다. 그 결과로 單一中心, 單一組織의 統一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은 깨지고 多中心의 民族的 共產主義運動이 出現하게 되었다. 요컨대 共產主義는 國際化的 時代에서 民族化的 時代로 突入하고 있는 것이다.

國家權力을 掌握한 여러나라의 共產主義者들은 맑스-레닌主義의 보편적 敎養에 대한 忠實성을 公言하면서도 同時에 한 特定한 國家의 指導者로 行세하고 싶어하고 있다. 각기 제 民族의 獨自的 過去를 意識하고, 國家利益을 守護하기 위해 努力하고, 主權意識에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大國으로부터 最大限의 可能的 自立을 努力하려는것이 中·蘇紛爭과 때를 같이해 일어난 現象이다. 특히 이들은 自己民族의 固有한 文化와 歷史를 강조하면서 東歐에 關한

로시아文化의 影響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것이 指導者들이 國民들의 支持를 얻는 길이기도 했다. 이와 同時에 東歐의 多大數 國家들은 蘇聯의 不滿을 무릅쓰고 西歐와의 知的 交流를 추진해 왔다. 이른바 <民族的인 것에 대한 肯定> (national affirmation) 現象이 나타났던 것이다. 만일 東歐에 蘇聯의 軍事的 壓力이 없었더라면 共產主義의 民族化는 보다 빠른 속도로 進行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蘇聯의 軍事力은 蘇聯國內 共產主義 國家들이 蘇聯을 離脫하기엔 이불 지나친 民族化에는 制限을 걸어왔다.

制限은 있었지만 共產主義 國家들이 民族化하면서 多中心體制를 形成해온데는 스탈린같은 鐵錘的 割一主義 - 中央集權主義의 명수가 다시 登場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重要한것은 中·蘇 2大 共產主義 國家 사이의 歷史的 紛爭이 그밖의 國家들의 小 共產黨들로 하여금 獨自的 行動을 取할 수 있는 一定한 餘지를 만들어준 事實이다. 北羅, 越盟, 루마니아 등은 中·蘇의 政治的 境界線에서 형세를 觀望하면서 蘇聯 또는 中共으로부터 軍事的 壓力을 받을 危險이 없는 한, 그 어느편에 기우러지거나 지도를 기다릴 必要없이 自黨의 路線을 자기가 決定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바니아와 같이 完全히 北京편에 加担 (1960~1976)하여 蘇聯에 正面으로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쿠바와 같이 처음부터 獨自的인 社會主義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 現在의 쿠바는 철저히 蘇聯편에 서고 있지만...

모스크바도 北京도 小共產主義國家들을 자기편에 예측시키려 하다가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켜 相對方으로 넘겨버리게될지 모른다는 危險性을 모두 經驗에 의하여 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小共產主義나라들에 壓力을 지나치게 加할 수도 없었다. 바르샤와 條約機構와 COMECON에 의하여 蘇聯에 묶여있는 東歐諸國도 反蘇的 立場을 取하지 않는한 對內外政策에 있어서 相對的인 意味의 自治權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나라들의 地位는 蘇聯의 屈從的인 衛星國에서 小同盟國으로 向上되었던 것이다.

中共의 경우도 文化大革命期(1966~1969)를 除外하고는 反中共的인 아닌한 小共產主義나라들에 壓力을 加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對美戰爭에서 蘇聯의 支援을 받는 越盟을 中共도 援助하고 있었다. 이것은 北聯의 경우에서도 비슷했다. 요컨대 美·蘇의 두 巨國의 鬭爭속에서 小共產主義나라들은 어느정도 漁夫之利를 求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世界 各國의 共產黨들은 맑스·레닌主義의 系列의 限界內에서는 스탈린時代와는 比較가 안되는 幅넓은 自治, 自主, 自我의 領域과 行動의 自由를 獲得할 수가 있었다.

그 結果로 모스크바와 北京이 各各 正統的 맑스-레닌主義의 中心으로 자처하는 것과 병행하여 베오그라드, 부크레스티, 하노이, 平壤, 하바나 등이 그 獨自的-自主的 立場을 내세우면서 계약된 範圍에서나마 각각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小中心이 되려했다. 統一的인 이데올로기의 分裂이 政治權力의 多中心化를 유도한 以上과 같은 國

際共產主義運動의 性格은 古代비잔틴教會의 性格과 흡사하다고 로베달은 비유하고 있다. ④ 그에 의하면 現代全体主義의 本質을 지니고 있던 비잔틴教會에서는 카톨릭教會에서와는 달리 皇帝가 同時에 敎皇으로 되는 소위 皇帝-敎皇-一体性을 特徵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信仰에 대한 忠誠과 國家에 대한 服從은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와 國家權力은 不可分의 統一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이데올로기가 分裂될 때는 政治的 多元化(權力의 分裂)現象이 일어난다.

스탈린死亡 以後에도 共產主義라고 하는 反宗教的 教會에서도 單一的 敎義가 깨짐으로써 그 中央集權主義는 종말을 고하고, 각각 自己의 權力을 正当化하는 새로운 敎義 또는 再解釋된 敎義위에 자체의 獨立教會를 세우려는 現象이 世界到處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의 이러한 時代的 추세를 따라 自身의 独自の 敎義(이데올로기), 敎會(黨) 및 敎權(政治權力)을 추구해온 것이 바로 金日成의 <主體>의 確立過程이다. 그러므로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큰 變動의 環境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黨宣傳員들은 <永生不滅의 主體思想>은 金日成에 의하여 비로서 <創始>되었다는것을 立証하기 위해 既存의 黨記錄은 削除하고 있는 記錄은 대담하게 創作해왔던 것이다.

---

註(4) 上掲 論文 參照

## (2) 对内的 權力鬭争의 要請

스탈린時代의 北韓은 東歐諸國과 마찬가지로 蘇聯의 權威가 圧倒的으로 優勢했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가 스탈린主義에 의하여 急速히 再編成되고 있었다.

金日成은 北韓의 스탈린이었으며 北韓의 金日成體制는 蘇聯의 스탈린體制의 복사판이었다. 이것은 個人崇拜作風을 人爲적으로 造장하여 1人獨裁의 權力機構를 強化하고 있던 點에서 그랬고, 소위 社會主義의 기초건설을 人民大衆의 生活의 희생위에서 急速度로 强행한 點에서 그러했고, 勞動者들의 罷業禁止, 秘密警察의 肅清作業, 經濟體制의 官僚化가 社會主義의 特徵으로 된 點에서도 그러했다. 스탈린은 1953年 3月에 死亡했고 國休戰은 1953年 7月에 成立되었다. 스탈린死亡後 스탈린主義는 蘇聯과 東歐에서도 退潮하기 始作했으나 北韓에서는 休戰後 스탈린主義가 더욱 強化되고 있는 逆現象을 보였다.

戰禍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北韓땅에서 金日成은 급박한 民生問題를 뒤로 돌리고 重工業優先主義, 軍事力의 強化, 성급한 農業集團化를 기본으로 社會主義建設을 다그치는데 全人民을 動員했다. 그리고 그의 目標와 方法은 1928年 以來로 스탈린이 蘇聯에서 一國社會主義의 建設을 強行하고 있던 때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했다.

스탈린은 蘇聯을 世界革命의 기지로 認識하고 一國社會主義의 建設을 가혹한 方法으로 밀고 나갔던 것처럼, 金日成은 北韓을 全韓

半島의 共產主義革命을 위한 <民主基地>로 규정하고 그것에서 超 스탈린主義的 方法으로 社會主義建設을 強行했던 것이다. 스탈린에 의한 蘇聯의 社會主義建設은 <資本主義의 危國>이라는 공포속에서 決行되었으므로 그 方法이 殘忍苛酷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戰後復旧建設計劃(1954~1956)과 5個年計劃(1956~1960)은 아직도 統一을 維持하고 있던 <社會主義障營>나라들, 특히 中·蘇의 國際的 支援속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따라서 1950年代의 北韓은 1930年代의 蘇聯과는 달리 內部的 狀況이 日 緊張되고 日 苛酷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反對로 北韓에서는 이 時期에 가장 가열한 黨內的 權力鬭爭, 肅清煽動, 社會의 編制化가 進行되고 있었다.

金日成은 戰爭의 開始와 더불어 새로 設置된(1950.6.26) 黨 軍事委員會의 委員長職을 차지하고 이것을 利用하여 黨內에서 權力을 一層 鞏固化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強化와 權力을 통하여 자기의 黨指導權에 挑戰하는 일체의 <反黨宗派分子>들을 소탕함으로써 自己支配下에 黨을 <統一>하는 것을 緊急한 課題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第1次的 目標은 朴憲永을 頂上으로 하는 南勞系였다. 서울에서부터 平壤으로 도피해간 朝鮮共產黨系, 즉 위의 南朝鮮勞動黨系는 朝鮮勞動黨內에서 形式上 많은 요직을 차지하고는 있었으나 金日成의 감시하에서 수다한 屈辱을 참아야 했다. 이들은 戰爭時期에 이미 金日成의 支配에 不滿을 품고 은밀히 抵抗組織을 擴大하고 있었다. 그러나 戰爭이 進行되고 있는동안

朴憲永과 金日成의 鬭爭은 表面으로 爆發할 수는 없었다. 休戰이 成立되자 金日成은 곧 이들에 對한 先制攻擊을 斷行했다. 1953年 7月 이들은 逮捕되어 特別裁判所에서 <美帝의 고용간첩>이란 罪名을 뒤집어쓰고 極刑을 받았다. 그리고 1955年 12月 朴憲永의 死刑을 집행함으로써 金日成은 党内最強의 反對派를 除去할 수가 있었다.

南勞黨系의 沒落으로 金日成을 위협하는 党内反對勢力은 蘇聯派와 延安派로 壓縮되게 되었다. 金日成一派는 스탈린에 의하여 派北되었음으로 解放直後에는 蘇聯派로 간주되고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蘇聯派는 許가이, 朴昌玉, 金承化, 朴義玩 등 蘇聯公民으로써 北韓에 派遣되어 黨과 政權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者들이다. 그중에서 金日成의 最強의 敵은 黨組織을 掌握하고 있던 許가이였지만, 그는 戰爭中 朴憲永과 反金日成 共同戰線을 폈다가 53年 2月 逮捕直前に 自殺했다. 그러나 許가이는 모스크바支持없는 蘇聯派였으며 그밖의 蘇聯出身 幹部들과는 不和關係에 있었다. 모스크바의 金日成에 對한 支持는 確固不動했으며, 소위 蘇聯派는 金日成을 核心으로한 黨과 政權을 創設하는 設計로써 派遣되었던 것이다.

한편 延安派는 解放直後 毛沢東의 革命根拠前 延安으로부터 歸國한 者들이며 金科奉, 崔昌益, 武亭, 尹公欽 등의 一派를 말한다. 그중에서 金日成이 가장 경계한 것은 中國內戰에 參加하여 명성을 날린 八路軍의 重鎮 武亭이었다. 北韓의 軍部の



相当部分이 武亭을 中心으로 하는 中共系 軍人들에 의하여 掌握되고 있었다는것은 金日成의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武亭은 1950年 12月 韓國戰爭에서의 敗戰責任과 命令不服의 罪過로 第2軍團長 職에서 解職된後 肅清되었다. 武亭의 沒落은 延安派의 沒落의 序曲임이 곧 判明되었다. 그러나 1956年 8月까지 延安派의 地位는 比較的 安全했다. 그것은 背後에 中共이 있었기 때문이다.

韓國戰爭이 일어날 때까지 北韓은 全적으로 크레믈린의 指示下에 있는 蘇聯의 典型的 衛星國이었다. 中國共產黨이 北韓에 다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것은 中共이 韓國戰爭에 派兵한 以後의 일이었다. 毛沢東은 林彪와 彭德懷같은 猛將을 韓國戰線에 派遣했고 中共의 <人民志願軍>은 人海戰術에 의하여 莫大한 犧牲을 치렀다. 國際關係에서는 어떤 나라를 위해 犧牲을 치른者가 그나라 問題에 關係 강한 發言權을 獲得하게 된다는것은 하나의 古典的 法則이다. 中共은 韓國戰爭에 參加하여 北韓의 黨과 政權을 絶滅의 危機로부터 구출함으로써 北韓에 다 政治的 影響力을 얻었고, 休戰會談의 當事者가 되었고, 日內瓦會議과 유엔總會等에서의 韓半島問題에 關係 討論에서는 發言權을 얻었다. 그리고 戰爭中과 戰後에 中共이 北韓에 제공한 軍-經援助는 中共의 對北韓 影響力을 強化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렇다고해서 北韓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이 弱化되지는 않았다. 스탈린이 死亡한 얼마 뒤까지도 蘇聯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中心이요, 中共도 蘇聯을 <先頭>로한 單一社會主義陣營에 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6年 흐루시초브의 衝擊的인 秘密演

說이 있을 때까지 北韓에서는 蘇聯의 權威가 여전히 우세했다. 그런데 흐루시초브의 非스탈린化運動은 北韓에서도 큰 파란을 몰고 왔다. 무엇보다도 北韓의 스탈린인 金日成은 이運動에 의하여 一大危機에 逢着하게 되었고, 金日成의 오만불손한 獨裁下에서 屈辱과 不平의 生活을 해온 延安派-蘇聯派 黨幹部들은 蘇聯으로부터 불어오는 非스탈린化運動에 큰 격려를 받았다. 스탈린死亡後 크레믈린內에서는 權力繼承을 둘러싸고 鬭爭이 있었으나 베리아의 處刑을 끝으로 流血肅清은 없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一人專制體制에 대신하여 集團指導體制가 나타났고, 이것은 東歐와 中國을 비롯한 各國共產黨內에 심각한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스탈린以後의 <自由化>로 불리는 政治的-文化的 緩和政策과 非스탈린化政策은 各國共產黨을 根本적으로 動搖케 했다. 여기서 金日成은 自己의 權力이 崩壞할지도 모른다는 危機意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蘇聯의 支援을 必要로 하는 한 흐루시초브의 政策路線에 反對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表面上으로는 흐루시초브를 支持하는 發言을 했다. 즉, 歴史的인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 後 또 열린 勞動黨第3次大會(1956.4)에서 그는 蘇聯共產黨의 平和共存路線과 核武器의 生産 및 使用禁止를 內容으로 한 흐루시초브의 軍備縮少 提案을 극구 讚揚했던 것이다.<sup>⑤</sup> 그러나 內心으로는 스탈린主義를 固守하고 흐루시초브型 修正主義를 反對하고 있는 것이 分明했다.

註(5) <<金日成選集>> 4, 平壤, 1960年, pp.443-444.

무엇보다도 金日成은 스탈린死亡後 서서히 進行되고 있던 個人崇拜 作風의 批判에 대해 不安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最高指導者에 대한 個人崇拜의 反對는 곧 金日成個人崇拜에 대한 反對, 즉 金日成의 權威에 대한 反對도 직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金日成은 北韓에서 個人崇拜을 퍼뜨린 것은 자기가 아니라 党内의 <宗派分子들>이라고 主張하면서 宗派主義와 <非妥協的 鬭爭>을 벌이고, 個人崇拜을 철저히 清算하여 党的 <統一과 團結>을 固守해야 한다고 역습했다.<sup>⑥</sup> 요컨대 그는 世界共產主義運動에 과급되어가고 있는 個人崇拜反對運動을 엉뚱하게 꺼꾸로 自身の 權力을 더욱 強化하는데 利用코저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金日成의 反對派들은 蘇聯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變化 - 스탈린 罪狀 暴露, 平和共存과 平和的 革命의 主張, 秘密警察의 組織과 權限의 大幅 縮少, 集團指導體制의 導入, 文化에 대한 統制緩和, 福祉政策의 伸張등에 의거하여 그를 除去하려는 運動을 했다. 金日成一派(주로 그의 遊擊隊時節의 直系中心)와 反對派(蘇聯派와 延安派)의 党内鬭爭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北韓에서 스탈린體制를 固守하려는者와 그것을 反對하는 者의 鬭爭이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鬭爭은 必然적으로 權力을 維持하려는 者와 그것을 빼앗으려는 者의 鬭爭이었다.

金日成은 反對派와의 鬭爭에서 스스로를 正當化할 수 있는 思想

---

註(6) 上掲書, p.540.

的 立場의 確立을 絶對로 必要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蘇聯 또는 中共을 믿고 自己의 独裁權에 도전하는 者를 党的 團結과 統一을 破壞하는 <反党宗派分子>요, 이들은 맑스-레닌主義를 옳게 理解하지 못하고 社会主義革命과 建設에서 蘇聯 또는 中共의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主体도 創造性도 없는 分子들이라고 非難하기 始作했다. 1955年 12月 28日 그는 앞에서 言及한대로 <主体>의 確立問題를 党内에서 最初로 公的으로 提起했다. 즉, 그는 <<思想事業에서 教条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主体>가 없이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기만 하는 党内의 蘇聯派와 延安派, 특히 蘇聯派에 대하여서는 許多한 事例를 들어 批判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朝鮮革命을 옳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党思想事業에서 <主体>를 세워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事業에서 革命的 真理-맑스·레닌主義的 真理를 体得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真理를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게 適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蘇聯式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原則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蘇聯式이 좋으니, 中国式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式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맑스·레닌主義의 真理를 배우지 않고 남의 形式만 따르는 것은 百害無益합니다. ... 우리나라의 歷史도 우리人民의 傳統도 무시하고 우리의 現實과 우리 人民의 각오 정도도 考慮함이 없이 남의 經驗을

機械的으로 適用한다면 敎條主義의 과오를 犯하게 될 것이며 革命事業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⑦

金日成이 <主体>確立의 必要性을 이와같이 說明한 것은 이미 論한 바와 같이 스탈린死亡後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劃一的 統制가 깨져 各國의 共產黨들이 独自の 路線을 追求하고 있던 一般의 狀況에서 였다. 그도 다른나라 共產黨指導者와 마찬가지로 모스크바(또는 北京)의 支配를 받고싶지 않다는 自我意識을 以上の 말에서 完곡하게 表現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가 <主体>의 確立이라는 思想的 名分을 自己에게 도전하는 党内反對派를 공격하는 派閥鬪爭의 武器로 삼았다는 戰術的 側面이다. 그의 主張에 따른다면 맑스·레닌主義의 真理를 터득한것은 바로 자기뿐이요, 自己의 反對派는 <남의 經驗을 機械的으로 適用한> 形式主義者와 敎條主義者였다. ⑧

맑스·레닌主義의 普遍的 原則을 그 나라의 具體的 條件에 <創造的으로> 適用해야한다는 要求는 世界의 모든 共產黨에 있어서는 하나의 公式이다. 그리고 權力을 掌握하고있는 者는 <創造的>인 맑스·레닌主義者로 公認을 받아왔고, 따라서 權力鬪爭에서는 反對派

---

註(7) 上掲書, pp.336-337.

註(8) 金日成은 <主体>란 말을 내세우기 이전부터 즉 1955年4月1日부터 党内의 形式主義와 敎條主義를 攻擧하기 始作했다. 이것은 벌써부터 党内의 權力鬪爭은 은밀히 進行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金日成選集>> 4, 前掲版, pp.230-237參照

를 <創造物>이 못된다는 批判을 加하는 것이 上투적인 手法이다. 金日成은 党内反对派에 대한 攻撃을 완곡하게 다음과 같이 表現했던 것이다.

맑스·레닌主義는 敎條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이며 創造的 學說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主義는 매개 나라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될 때 비로서 그 不敗의 威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입니다. 兄弟黨의 經驗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兄弟黨들의 經驗을 研究하여 그 本質을 把握하고 그것을 우리 現實에 옹기 適用하여야 그 經驗이 價値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 일을 亡쳐 버린다면 우리 事業에 害를 줄뿐만 아니라 兄弟黨들의 高貴한 經驗까지도 毀損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입니다. ⑨

1955年當時 金日成은 党内反对派들을 批判할 때는 <敎條主義>라는 言葉を 使用했으며, 이들이 아직 맑스·레닌主義의 原則을 <創造的으로> 適用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表現 以上을 넘지 않았다. 金日成이 말하는 <敎條主義>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처한 具體的 現實條件을 타산하지 않고 일반 命題를 그대로 適用하거나 남의 것을 機械的으로 옮겨다 놓는 태도>요 <비유해서

---

註(9) 上揭書, p.337.

말한다면 남의것을 통채로 삼킨다는 뜻>이라는 것이다.<sup>10)</sup> 金日成은 바로 그 反對派들이 이런 <教條主義>의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을 主張했다. 그의 反對派들, 즉 蘇聯派와 延安派는 흐루시초브의 路線에 公明하면서 그의 힘을 援用하여 金日成을 타도하려 했음이 明白하다. 그리고 흐루시초브는 자기의 非스탈린化政策을 北韓에서도 推進할것을 金日成에게 要請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흐루시초브의 非스탈린化政策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個人崇拜反對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흐루시초브가 政治的 運命을 걸고 斷行하고 있는 個人崇拜反對政策에는 처음부터 완강히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自己의 權力的 終末과 直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數年뒤에 와서 (1963年10月28日) <<로동신문>>은 北韓內 金日成反對派를 성원한 흐루시초브의 個人崇拜反對를 다음과 같이 公박하고 있다.

소위 <個人迷信反對>運動을 다른 黨들에게 내려먹이려 하며 그것을 干渉으로 하여 兄弟黨 兄弟國家들의 內政에 干渉하고 이 나라들의 黨指導部를 轉覆하기 위한 活動을 敢行하는 것은 法대로 容許할 수 없다. 바로 <<個人迷信反對>>의 소동으로 하여 數 많은 兄弟黨들이 公公然히 熱病을 겪었으며 國際共產主義運動이 커다란 損失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늘도 一部 사람들에 의하여 <個人迷信反對>의 소동은 繼續되

---

註(10) 上揭書, p.623.

고 있다. 이러한 行動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斷乎히 排擊되어야 한다.<sup>⑪</sup>

다음으로 党内權力鬭爭에서 争点으로 된것은 社會主義建設의 方法에 관한 것이었다. 党内의 蘇聯派와 延安派는 金日成의 急進的 社會主義改造 및 建設方法에 反對하고 이에서 權力鬭爭의 正當性을 찾고 있었다. 金日成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反黨宗派分子>들은 자기의 重工業 優先政策을 非現實的이라고해서 시비하고 당면한 人民生活를 考慮할것과 時機가 이른 農業集團化와 個人商工業의 協同組合化政策을 拋棄할 것을 主張했으며, 이들의 主張은 党内外에서 相當한 共感을 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⑫</sup> 이 <反黨宗派分子들>의 金日成批判을 蘇聯共產黨이 支持하고 있었음을 後日 <<로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暴露했다.

지난 시기 일부 同志들은 우리黨의 社會主義建設政策에 대하여도 適當한 理解와 支持를 表示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個年計劃은 幻想>이라느니 <機械製作工業을 建設할 必要가 없다느니 <農業協同化의 速度가 빠르다>느니 <農機械가 없이 어떻게 農村經濟를 協同化할 수 있겠는가>하는등 남의 實情도

---

註(11) <社會主義陣營을 擁護하자>, <<로동신문>>, 1963年 10月 28日字 社說.

註(12) <<金日成選集>> 6, 平壤, 1966年, pp.123-124.



모르면서 여러가지로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決心대로 独自の으로 行動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損失을 받은 것은 없었다. ...<sup>13)</sup>

蘇聯派와 延安派는 1956年 8月 드디어 党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派에 대한 決戰을 단행했으나 結果는 慘敗로 돌아갔다. 이를 뒤따라 蘇聯派가 延安派에 接近했던 黨員들에 대한 수색출전이 벌어졌고 1930年代의 스탈린의 大肅清을 방불케 하는 恐怖雰圍氣로 北韓議會는 끌려들어갔다. 이 世稱 <八月宗派事件>은 勞動黨內的 權力鬭爭으로는 가장 큰 事件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中·蘇關係라는 側面에서 重要な 意義를 지니고 있다. 이 事件을 契機로 党内反對派에 대해서는 비단 <教條主義>뿐만아니라 <現代修正主義者>, <反革命分子>, <事大主義者>, <民族虛無主義者> 등의 새로운 비방이 添加되게 되었다. 金日成은 이들 <宗派分子>는 <外部로부터 침습한 國際修正主義의 사상영향에 사로잡혔다><sup>14)</sup>고 非難하는 한편, 이 <反黨修正主義分子>들이 이들을 支持하는 <다른 나라의 修正主義者들>과 結托하여 自己의 權力을 <뒤집어엮기 위한 陰謀를 敢行하였다.><sup>15)</sup>고 斷言했던 것이다.

註(13) <<로동신문>>, 1963年 10月 28日 字, 上揭社說.

註(14) <<金日成選集>> 5, 平壤, 1960年, p.241.

註(15) <<金日成著作選集>> 4, 平壤, 1968年, p.200.

以上을 要約하면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스탈린死亡後의 國際共  
産主義運動의 分裂속에서 出現한 多元化推勢의 한 支流다. 그리고  
흐루시초브의 <修正主義>의 壓力下에서 이에 편승한 党内의 <反  
黨宗派分子들>의 反抗에 直面하면서 金日成이 死活을 걸고 黨指導  
權을 固守, 強化할때에 思想的 武器로서 <主体>確立에 강조되기  
始作했다. 그가 1955年頃부터 출연 <自己의 것>, <제나라 歷  
史>,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主体>를 내세운것은 國內外的 도전으  
로부터 自己自身の 權力과 政策路線을 擁護하기 위해서였다. 蘇聯  
과 中共이라는 두 共產主義巨國의 影響力밑에서 金日成의 黨指導權  
을 維持 強化하기 위해서는 <內政干涉>, <事大主義>, <大國主義>  
를 反對하면서 自主的이오, 民族的 感情에 부합하는 思想的 立場을  
제시하는것이 效果的이었다. 그런 것으로써 金日成이 찾은 것이  
바로 <主体思想>이었던 것이다.

## 第二章 主体思想의 圖式

### (1) 思想, 政治, 經濟, 國防에서

北韓의 主体思想은 金日成이 만들어낸 『革命과 建設의 가장 正確한 맑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며』<sup>①</sup> 北韓 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sup>②</sup>이라고 한다.

金日成은 主体思想의 理論的 根拠를 맑스-레닌主義에서 求하면서 이것을 그의 独裁統治上的 永遠不滅하는 哲學으로 美化하고 있다.

金日成은 主体思想을 처음으로 표방한 1955年12月28日 「思想 事業에서 敎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体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題目으로 「黨宣傳煽動 일군들 앞에서 한 演說」 가운데서 『맑스-레닌主義는 敎條가 아니라 行動의 指針이며 創造的 學說』<sup>③</sup>이라고 規定하고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主義는 各國의 具體的 條件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될 때에 비로소 그 不敗의 偉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후 金日成은 主体思想을 言及할 때마다 「맑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을 強調하고 있다.

註(1)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553.

(2)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437.

(3) <<김일성저작선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 570.

即 金日成은 맑스-레닌主義의 敎條性은 否認하지만 그 創造的 適用의 價值를 讚揚함으로서 國際共產主義運動으로 부터 異論이라는 비난을 예방하면서 北韓 住民들에 對해서는 날조된 歷史와 金日成 自身の 「抗日武裝鬪爭史」를 통해 服從的인 一體感 形成을 試圖하고 있다.

그래서 金日成은 그의 統治手段의 모든 部門에서 主体思想을 精神的 支柱로 삼고 있다. 勞動黨規約은 그 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은 맑스-레닌主義를 創造적으로 適用한 金日成동지의 偉大한 主体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sup>④</sup>고 規定하고 있으며 北韓의 새 憲法도 第4條에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sup>⑤</sup>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곧 主体思想의 溯源을 北韓 政府는 黨에서, 黨은 金日成에서 찾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北韓의 主体思想은 「金日成의 主体思想」이며 金日成이 主体思想을 「創始한」 目的은 그가 黨을 黨은 政府를 「効率的으로」 支配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北韓의 主体思想이란 北韓 住民의 主体를 소중히 여겨

---

註(4)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1979, p.209.

(5) 上掲書, p.225.

나온 것이 아니고 民族主体는 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 住民은 오히려 金日成의 主体思想 旗幟아래 더욱 隸屬化되었고 民族의 歷史도 主体思想으로 더욱 歪曲되어 버렸다.

그러나 金日成은 主体思想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理論的 体系가 必要했고, 이 体系는 對外的으로는 宣傳에 對內的으로는 住民感情에 모두 어필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國防에서의 自衛」라는 圖式이다.

그러나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그 圖式은 사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狀況變化와 對內的 權力鬭爭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로써 出現되었다. 따라서 金日成의 말대로 「主体思想」이란 表現은 確固不動한 것일지 몰라도 그 內容은 与件과 独裁強化의 必要에 따라 수시로 變할 수 있는 流動的인 것이다. 即,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심오한 哲學的 意味를 바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歷史性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직도 未完成段階에서 理論上으로는 矛盾點들을 드러내고 實踐에 옮겨질 때는 難關에 봉착하기 일쑤이다.

이제 主体思想의 圖式을 따라 그 理論과 實際를 해부해 보기로 한다.

「思想에서의 主体」는 人間을 思想的으로 改造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1955年12月28日 金日成이 「黨宣傳煽動 일군들」앞에서 演說하는 가운데 最初로 提起되어 1966年10月18日 金日成이 「黨中央委員會 組織指導部 宣傳煽動部 일군들」 앞에서 演說할 때

거의 定立을 보았다. 金日成은 66年10月18日 演說에 『사람들을 革命化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利己主義, 個人主義를 비롯한 부르조아思想을 빼고 個人의 利益보다도 集團과 全体的 利益을 重要하게 여기는 共產主義思想 意識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革命化한다는 것은 個人의 利益을 버리고 黨과 革命을 위하여, 大衆을 위하여, 人民을 위하여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려는 강한 意志를 가진 革命家로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sup>⑥</sup>고 그가 要求하는 人間像을 설정하고 있다. 그는 또 1978年 9月9日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創建 30 週紀念 中央慶祝大會에 서 한 報告」에서 『3大革命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思想革命』<sup>⑦</sup>이라고 前提하고 『모든 勤勞者들이 우리 黨의 革命思想, 主体思想으로 튼튼히 武装하였으며 온 社會에 主体思想이 파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全体 人民들은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에 對한 높은 忠誠心을 간직하고 있으며 革命의 要求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용감하게 鬪爭하고 있습니다.』<sup>⑧</sup>고 主体思想의 現段階를 이야기하고 있다.

金日成은 「主体思想의 旗幟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 建設을 더욱 다그치자」는 題目의 이 演說에서 온 社會를 主体思想化하는 것을 「共和國政府」의 最終 目標로 設定하고 모든 사람들을 「共產主義

註(6) <<김일성저작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416.

(7) <<근로자>>, 1978년 10호, p. 6.

(8) 同誌, p. 6.

的 人間」으로 만들 것과, 온 社會를 主体思想의 要求대로 철저히 改造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하여 만들어지는 社會는 「思想의 要塞」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무서운 國家觀이다. 78年末 가이아나에서 發生했던 존스의 「人民寺院」과 흡사한 社會를 이룩하자는 것이 「思想에서의 主体」의 目標이다. 그는 「人民大衆」이 「國家」를 만들고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國家」가 「人民大衆」을 만들고 변형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國家至上主義를 내걸고 있다.

金日成은 「思想에서의 主体」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몇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먼저 손꼽히는 것이 「3大革命小組」 組職이다.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北韓에 불어붙었던 「3大革命小組」 運動은 한때 北韓 權力層의 內紛에 의해 小庚狀態에 들어갔으나 78年9月9日 金日成의 上記報告를 계기로 되살아났다.

金日成은 이때 『우리 黨은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3大革命小組運動을 발기하고 政治的 實務的으로 準備된 黨核心들과 靑年인테리들로 3大革命小組를 두어 工場, 企業所, 協同農場들을 비롯한 人民經濟 여러 部門에 派遣하는 積極的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sup>⑨</sup>고 공표했다. 77年12月の 最高人民會議 報告 「人民政權을 한층 強化하자」는 題目의 演說에서

---

註 (9) 同誌, pp.10~11.

는 「主体思想」이나 「3大革命」에 관해 거의 言及이 없었던 데 비추어, 9個月만에 金日成이 이렇게 말한 것은 77년에는 平壤의 指導層 内部에 어떤 異見對立 내지 權力鬭爭이 심각했으며 78년에는 金日成이 危機를 수습하고 内部政治에서 어느 정도 自信을 얻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아 물론 3大革命小組는 「革命的 前衛」로서 「鬭爭의 旗手」로서 다시 金日成에 의해 活用되었다. 3大革命小組는 1973年 2월에 金日成의 発意에 의해 党的 決定으로 탄생된 것으로 金日成의 아들 金正一에 의해 組織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3大革命小組의 運動이 위축되었던 時期는 金正一의 金日成後繼問題를 둘러싼 鬭爭이 展開되었던 時期이며 이제 다시 3大革命小組가 脚光받는 것은 金日成의 自画自讚이라는 점과 함께 金正一後繼가 굳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3大革命小組는 실제로 狂氣에 가까울 정도로 6個年計劃을 앞당겨 달성하려는 「速度戰」, 「電擊戰」, 「殲滅戰」을 추진하며 金日成에의 「無條件性, 絶對性的 忠誠」, 「살아도 首領을 위하여, 죽어도 首領을 위하여」라고 하는 忠誠競爭을 展開하는 組織이다.

이러한 3大革命小組가 機能을 회복하게 된 것은 金日成 独裁強化와 金正一 後繼에 대한 北韓 住民들의 盲從을 強要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金日成은 主体思想을 確立하기 위해 새로운 法体系를 構築했다.



우선 1972年10月부터 12월에 걸쳐 制定된 新社会主義 憲法이 「國家主席」制를 新設, 金日成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命令의 發出權」을 갖고, 동시에 新設된 中央人民委員會에 政令, 決定의 採択權과 指示의 發出權을 부여했다. 이것은 金日成이 종래에는 黨의 首領으로써 實質的인 權限을 行使하던 것을 이제는 「國家主席」의 자리까지 차지한 名실상부하게 最高權力者, 絶對者로써의 지위를 누리는 한편 最高人民會議은 立法機關으로써의 性格을 顯저하게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76年4월에 制定된 幼兒保育敎養法은 幼兒는 「代를 이어 革命을 할 革命偉業의 繼承者」라고 規定하고 幼兒를 「主体型의 革命的인 새로운 人間」으로 기르고, 어머니를 「幼兒敎育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解放」시킬 것을 指向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람을 어릴때 부터 主体思想으로 完全 敎化시켜 金日成의 後繼者에까지 3大革命小組가 展開하는 「無條件性, 絶對性의 忠誠」을 「즐겁게」 바치도록 하는데 있다.

78年9月29日 平壤에서 開催된 「全國敎育活動者大會」에서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兼 秘書 金院은 「金日成主席이 提示한 社会主義 敎育에 관한 提제를 철저하게 關切하기 위하여」라는 報告에서 『우리 靑少年 學生은 主席을 마음으로부터 崇拜, 一念으로 忠誠을 다하는 主体型의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만들도록 敎育시키고 있다』<sup>⑩</sup> 고 말했다고 金日成은 政權樹立 30周年記念 報告에서 『지금

註(10) <<코리아評論>>, 民族問題研究所, 1979年3号, p.40.

우리나라에서는 人口의 절반이 넘는 8百60萬名の 어린이들과 學生들이 國家의 부담으로 無料敎育을 받으며 共產主義的 革命人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sup>①</sup>고 자랑했다.

여기서 8百60萬名은 단순한 8百60萬名이 아니다. 이들을 保育 敎育시키는 敎院, 保育院, 敎養院들이 있고 이 어린이들을 人質로한 부모가 어떤 形態로든지 主体型의 人間으로 교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現在 北韓에서 主体思想의 敎育을 받고 있는 人口는 1千萬名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北韓은 하나의 커다란 「人間改造工場」이라고 말할 수 있다.

金日成은 또 78年4月 主体型의 社会主義勞動法을 制定했다. 勤勞者는 勞動을 통하여 自己를 革命化할 것을 目標로한 이 法은 第33条에서 『8時間 勞動, 8時間 休息, 8時間 學習의 原則을 철저히 貫철』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北韓 勤勞者들의 이와 같은 時間生活은 常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다.

一般적으로 健康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時間은 8時間이라고 한다. 勞動時間 8時間은 北韓의 成人이라면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成人들은 8時間을 金日成의 主体思想 學習에 割愛할 것을 強要당한다. 그렇다면 休息時間 8時間을 쪼개어 수면, 食事, 交友, 家庭生活(夫婦의 性生活, 父母兄弟間의 환담등의 時間 뿐만 아니라 家事整理時間도 包含됨)을 영위해야 한다.

註(11) <<근로자>>, 1978년 10호, p.9.

따라서 北韓 住民들은 休息時間의 不足으로 항상 피곤한 狀態에 있게되며, 피곤은 學習時間에 가장 크게 느끼기 마련이다. 北韓 住民들에게는 金日成의 著作類가 전부인 이 學習을 되풀이하는 時間이 가장 지긋지긋할 것에 틀림없다.

요컨대 北韓은 「國家」와 「黨」이 學生·勤勞者(이 두가지 職業이면 北韓 住民이 거의 다 包含된다) 한사람 한사람의 生活 全体를 完全 管理下, 支配下에 두고 있다. 존스의 人民寺院을 除外하고는 古代王朝時代로 부터 現代民主社會에 이르기까지 東西를 통해 이처럼 하루 24時間의 全生活을 國家支配가 強制下, 管理下에 들어가본 人類歷史는 없다. 「思想에서의 主体」化 作業은 어떤 國民도 經驗해 보지 못한, 따라서 어떤 結末을 가져올지 豫測할 수 없는 当代의 가장 큰 悲劇이다. 「政治에서의 自主」는 내부의 權力鬭爭과 中·蘇理念紛爭의 渦中에서 金日成이 生存의 길을 찾기 위해 「創造된」 것이며 이것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狀況變化와 東西間의 緊張緩和 무드에서 매우 流動的으로 活用되고 있다.

金日成은 北韓政權 樹立初期의 權力構造에서 崔昌益등의 延安派와 朴昌玉등의 蘇聯2世派, 그리고 朴憲永등의 南勞系를 숙청하는 무기로 「政治에서의 自主」를 利用했다.

金日成이 1955年12月28日 黨宣傳煽動 일꾼들 앞에서 처음으로 宣傳事業이 많은 점에서 敎條主義와 形式主義에 빠져 있으며 思想事業에서 主体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라고 불평을 털어놓았을때, 그는 매우 분노에 찬 語套로 朴昌玉, 朴憲永, 朴英彬

등을 신랄히 공격했다.

金日成은 그 자신은 解放直後인 1945年 가을에 이미 『우리 민족의 鬪爭歷史를 研究하며 그 우수한 傳統을 繼承할데 대하여 強調』<sup>(12)</sup>했으나 宣傳煽動일꾼들이 이 指示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宣傳事業의 全面改編을 역설했다.

그는 朝鮮歷史에서 朴燕岩, 丁茶山 같은 先進的 學者, 作家들의 우수한 作品과 光州學生事件, 3.1 運動等を 깊이 研究하여 宣傳하지 않았기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은 勿論이요, 「民族的 양심을 가진 進歩的인 人事」들을 「옳은 方向」으로 이끌수 없다고 말했다.<sup>(13)</sup>

金日成은 當時 北韓의 宣傳事業이 잘못되어 있는 몇가지 端的인 例를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내가 언제인가 人民軍 休養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씨베리(筆者注: 「시베리아」의 北韓 表記) 초원의 그림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風景은 아마 로씨야(筆者注: 「러시아」의 北韓表記) 사람의 마음에는 들것입니다. 그러나 朝鮮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수강산이나 모향산과 같은 아름다운 산들이 있으며 맑은 시내물과 파도치는 푸른 바다가 있으며 五穀이 무르익는 논밭이 있습니다. 우리 人民軍隊로 하여금 자기의 郷土와 祖國을 사랑하게 하려면

註(12) <<김일성저작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p.561.

(13) 上掲書, pp.562 ~ 563 參照.

이러한 우리나라 風景의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여름 어느날 지방의 民主宣傳室에 가보니 거기에 蘇聯의 5  
個年計劃에 대한 函表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5個年計劃에 대한 函  
表는 한장도 없었습니다』

『人民學校에 가보니 寫真을 걸었는데 마야꿈쓰끼, 뿌슈킨등 全部  
外國 사람들 뿐이고 朝鮮 사람이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소재  
자를 적을 때에 목차를 붙이는데도 남의 본을 따서 그것을 뒤장  
에 넣습니다. ……우리 책의 目次는 응당 첫머리에 붙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sup>⑭</sup>

金日成의 이같은 지적은 當時 蘇聯派 朴昌玉과 朴英彬등의 숙청  
을 「正當化」하는 理論으로 使用되었고 한편으로는 스탈린 死亡後  
中共이 世界 第2의 大共產勢力으로 登場함에 따른 國際共產主義의  
2元化내지 多元化 傾向에서 새로운 進路를 모색하는 宣言이었고  
또 가장 重要하게는 「金日成崇拜」를 促求한 신호였다.

金日成은 그후 자신에 대한 崇拜運動을 어떤 다른 部門의 運動  
보다도 급속히 추진, 現在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지나간 자취마다  
「유서 깊은 革命의 史蹟地」로 단장된다.

北韓이 主体思想을 對外的으로 公式宣言한 것은 1966年8月12  
日 字 勞動新聞의 社說 『自主性を 擁護하자』에서 였다. 이 社  
說은 中·蘇紛爭이 일으키는 未曾有의 격동속에서 모스크바나 北

---

註(14) 上掲書, pp. 564 ~ 565.

京을 莫論하고 外部에 依存하고 있었다는 金日成의 反對派들을 「修正主義者」, 「教條主義者」, 「事大主義者」라고 공격하고, 世界의 모든 共產黨들의 相互關係에서는 「完全한 平等, 自主, 互相尊重, 內政不干涉, 同志的 協調」의 規範을 嚴格히 遵守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 社說은 共產黨들 사이에서는 어떤 特權的 黨도 있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指導하는 黨과 指導받는 黨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中央的 地位에서 指示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服從하고 떠받드는 關係란 許容될 수 없다. 그들은 다같이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同等한 成員들이다』<sup>15)</sup>

이러한 주장은 北韓이 코민테른(第3 인터내셔널)과 같이 各國 黨에다 中央集權的 統制를 加하는 「世界革命의 中心」을 거부한 것이다. 金日成은 그해 10月5日 勞動黨 代表者會에서 「現情勢와 우리 黨의 課業」이란 題目으로 演說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를 한층더 분명히하고 있다.

『대개 나라에서의 革命은 결코 그 어떤 國際的 <<中央>>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 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黨의 指導 밑에 그 나라 人民의 힘에 의하여 遂行되고 있습니다. 共產主義者

---

註(15)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들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그 어떤 <<中心>>이나 <<中央>>도 인정하지 않습니다』<sup>⑬</sup>

金日成이 中·蘇의 兩大國紛爭 속에서 이처럼 自主路線을 扞할 수 있었던 것은 党内에서의 자기의 独裁權力이 이미 確立되었고, 世界共產主義圈 内에서 多元化 現象이 일어나 中·蘇紛爭에서 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었다는 主觀的·客觀的 條件에서 였다. <sup>⑭</sup>

그러나 金日成은 70年代에 들어와 越南戰爭이 끝나고 東西間의 緊張이 和解와 接近으로 急變하는 世界情勢에 能動的으로 대처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試行錯誤를 빚었다. 이동안 그는 主体思想을 對外的으로 鎖國政策에 授用했다가 오늘날에는 非同盟外交의 「大展開」를 위한 武器로 活用하고 있다.

「經濟에서의 自立」은 金日成이 社會主義 國家에서 自主的 民族 經濟를 建設하는 것은 「政治的 自主」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에서 構成한 것이다. 이것은 1956年12月11日 金日成이 党中央委員會 全會會議에서 演說하는 가운데 처음 提起되었다. 이때 北韓은 蘇聯으로 부터 援助가 激減하여 5個年計劃 樹立에 蹉跌이 빚어지고 있었다. 6.25 動亂後 10餘年間 對外依存經濟에서 환멸을 느꼈던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註 (16) <<김일성저작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347.

(17)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1976. pp.346 ~ 347 參照.

고 있다.

『經濟的 自立은 政治的 獨立의 均質的 基礎입니다. 經濟的으로 外勢에 依存하는 나라는 政治的으로도 다른 나라의 追從國家로 되며 經濟的으로 隸屬된 民族은 政治的으로도 植民의 奴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sup>18)</sup>

그리고 金日成은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業을 主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직한 經濟的 土台」는 오직 「自力更生의 原則」, 「自立的 民族經濟建設路線」을 견지해야만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에게 있어서 自力更生이란 우리나라 革命은 基本的으로 자기의 主体的 力量에 依拠하여 完遂하려는 철저한 革命的 立場이며, 자기 國家 建設은 자기 人民의 勞動과 자기 國家의 富源으로 進行하려는 自主的 立場』<sup>19)</sup>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北韓의 宣傳物들은 이 自力更生의 精神도 金日成이 最初로 「創造的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 가운데서 毛沢東은 이미 1935年 12月 27日 「自力更生」을 처음으로 부르짖었고 2次大戰後 많은 新生國들 가운데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自力更生의 精神을 발휘하지 않은 國家가 거의 없다. 毛沢東의 경우 革命選

註(18) <<김일성저작선집 4 >>, p. 537.

(19) 上掲書, p. 537.



動에서 國際的 援助를 얻기가 어려울때, 大衆의 生活苦에서 오는 불만이 高潮될 때 危機를 넘기기 위해 이를 부르짖곤 했는데 金日成은 사실 毛沢東에서 「自力更生」 口號를 배웠고 또 그것을 勳員한 先例를 따랐다고 推斷할 수 있다.

毛沢東은 1958年 여름에 始作된 大躍進運動이 蘇聯 援助의 斷絶로 破局에 부딪치자 自力更生의 口號를 다시 들고나와 大衆의 革命的 정열을 고취했는데 中共의 大躍進運動에 뒤따라 北韓에서 1959年 2月 千里馬運動이 始作된 後 金日成도 「自力更生」의 口號를 부르짖었던 것은 千里馬運動이 처해 있었던 國際的 環境(蘇聯 援助의 斷絶)이 大躍進運動이 처해 있었던 國際的 環境과 同一하기 때문이다. ②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을 처음에는 흐루시초브時代의 蘇聯이 經濟援助를 구실 삼아 內政干渉을 試圖한데 대한 충격에서 認識했으나 그후에는 韓國을 공격하고 東歐의 「修正主義者들」을 비난하는대로 擴大 適用해 왔다.

그러나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에서 어디까지가 外勢에 대한 依存이고, 어떤 方式이 對外的 經濟協力인치의 基準을 오로지 그의 主觀的 判斷으로만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北韓이 蘇聯 또는 中共으로 부터 받는 經濟援助나 資本主義 日本 또는 西歐로부터 얻는 借款은 하등 自力更生의

---

註(20)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1976, pp.347~348 參照.

精神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韓國이 美國, 日本 또는 西歐 國家들과 經濟協力 關係를 갖는 것과 東歐의 유고슬라비아, 두브체코 時代의 체코슬로바키아가 西方諸國과 經濟적으로 提携하는 것은 「植民地的 隷屬」 또는 「追從」이 된다.

金日成은 自立的 民族國家를 急速히 建設하기 위하여 休戰以後부터 6 個年計劃(1971~76年)을 期間前에 달성했다는 75年10月 現在에 이르기까지 重工業의 優先的 成長을 「보장」하면서 同時에 輕工業과 農業을 發展시킨다는 強硬路線을 걸었다. 金日成은 重工業을 北韓 經濟에서 「가장 큰 밑천」으로 認識하고 重工業을 基礎로 해야만 輕工業과 農業도 發展시킬 수 있고 擴大生産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固守해 왔다.

그는 이러한 路線을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要求를 옳게 反映하고 맑스-레닌主義 理論을 創造적으로 發展시켜 達成한 獨裁的 路線』<sup>②</sup>이라고 스스로 높이 評價하고 있다.

金日成은 「經濟에서의 自立」을 實踐함에 있어서 産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조급히 단행했다. 1954년에 着手한 農業集團化運動은 58年8月 完成되었고 小規模의 個人商工業은 말할 것도 없고 零細手工業도 「自願性」의 原則에 따라 1956~58年사이 모두 協同組合으로 改편되었다.

註(21) <<日本読売新聞 記者가 提起한 質問에 대한 對答>>, 로동신문, 1972年1월11일.

그러나 社會主義的 改造의 完成은 社會主義 經濟制度의 全面的 改編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建設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重要한 것은 技術과 資本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5 個年計劃(1957~60), 7 個年計劃(1961~70), 6 個年計劃(1971~75)을 통해 繼續 「技術革命」을 強調했다. 그러나 技術革命은 文化革命 없이는 遂行될 수 없고 이 두가지에 先行되어야 할 것을 思想革命이라고 金日成은 말해왔다. 그리고 60年代 後半부터 韓國 經濟의 急速한 成長을 본 金日成은 「自力更生」의 神話가 不可能했다고 깨달은듯 日本과 西歐로부터 外資를 도입했다.

그러나 北韓의 非開放經濟는 技術改善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技術이 改善되지 않은 채 導入한 外資는 결국 償還不能의 債務累積으로 惡化되기만 했다.

여기서 金日成은 이 危機를 打開하기 위해 74年末의 「70日戰鬪」, 75年 「忠誠의 大突擊戰」에 이어 第2次 7 個年計劃이 始作된 78년에는 「100日戰鬪」를 격렬하게 展開했다. 100日戰鬪는 기실 7 個年計劃의 初年度를 軌道에 올려 北韓 政權樹立 30 周年記念行事에 業績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北韓 經濟는 最惡의 危機는 넘겼는지 몰라도, 자랑살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北韓은 對日 및 對西歐 負債償還을 연기할 수 있다 고해도 이것을 清算, 國際的인 信義를 회복하고 따라서 對外關係에서 「主動적으로」 作用하며 「主体」를 確立할 날을 요원하다고 하겠다.

金日成은 現地指導, 經濟指導에 많은 精力을 쏟고 있으나 그 本質에 있어서는 西方의 群小開放經濟를 이끌어가는 指導者들의 活動과는 다르다. 「忠誠의 總突擊戰」으로 순수한 意味의 「自力更生」을 아무리 다그쳐 보았자 政治的 獨裁가 무너질까 두려워 閉鎖를 추구하는 限 外貨獲得에 기적은 없다.

金日成의 「經濟에서의 自立」에서 또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産業分布의 再編이다. 金日成은 平安北道를 北韓의 「主要한 穀物生産基地」로 만들 것을 「指示」하고, 『平安南道는 共和國 工業의 中心地로서, 平安南道の 工業을 急速히 發展시키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고 強調했다. ② 金日成이 特定地域을 經濟建設의 「中心」이라고 選擇적으로 指摘한 것은 吟味해 볼 價值가 있는 것이다.

從來 北韓에는 阿吾地 石油化學基地 雄基 精油所 및 火力發電所 清津港, 茂山炭鉍 金築製鐵聯合企業所, 咸興 興南地域의 化學工業, 合成纖維工業等 咸鏡南北道 地方이 重要工業地帶였으며 蘇聯의 經濟技術援助도 이 地域에 集中的으로 投入되었다.

그러나 數年來 北韓의 工業建設은 東海方面의 咸鏡道 地方에서 보다 西海方面의 平安道 地方에서 더 活潑한 現象을 뚜렷이 볼 수 있다. 新義州 附近의 烽火化學工場, 安州地區 炭鉍聯合企業所가 北韓이 가장 많은 資金을 投入하여 建設하는 企業이며 港灣에 있어서도 西海岸에 있는 南浦, 海州의 두港을 建設, 補充하는데 「全

註(2) <<코리아評論>>, 1979년 5호, pp. 51~52 參照.

黨」, 「全國」의 힘을 集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建設 中心의 轉換은 두가지 큰 意味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北韓의 經濟가 對蘇依存型에서 對中共依存型으로 바뀌고 있는 証左이다. 종래 北韓의 對中·蘇 等距離路線은 대체로 政治的으로는 中共에 더 가깝고 經濟的으로는 蘇聯에 더 가까운 것으로 觀測되어 왔다. 그러나 73년부터는 對中·蘇 經濟關係에서 均衡을 모색하고 있는 努力이 현저히 나타났다. 이는 中共의 4가지 現代化計劃의 責任을 맡은 鄧小平이 73年 4月 1次 復權했다는 사실과 73年末 第4次 中東戰을 계기로 世界的인 에너지쇼크에 際하여 中共의 大慶油田이 눈길을 끌었던 사실과 無關하지 않은 것 같다.

두번째로는 北韓 政治權力層에서 咸鏡道勢力과 平安道勢力의 對決에서 平安道勢力이 점점더 우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咸鏡道 地方은 과거 日本植民地時代때부터 南北韓을 통하여 中心的인 工業地帶가 되었고, 北韓에 共產統治가 始作된 後에도 蘇聯의 影響을 強力히 받아 勞動運動, 農民運動의 先進地帶였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이 地域으로부터 第1級의 共產主義 「人材」들이 많이 나와 「勞動黨」內部에서도 은연중 一大勢力을 形成하고 있었다. 그들을 들여보면 이미 숙청된 有力幹部로써 吳琪燮, 朱寧河, 鄭達憲, 武 亨, 崔昌益, 朴金喆, 李孝淳, 李 英, 金光俠

金昌滿, 吳泰鳳 등이 있고, 死亡한 者로는 許 憲, 南 日, 李周淵, 鄭 準況, 洪元吉 등이 있으며, 現政權 幹部로써도 金 一, 崔 賢, 朴成哲, 李鍾玉, 吳振宇, 金仲麟, 許 鎰, 桂 庇泰, 金敬連, 金英男, 尹基福, 崔戴 羽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現在 政權에 남아있는 者들은 滿洲의 빨치산派이거나, 金日成 一族의 緣故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經濟專門家들이란 理由로 金日成 그룹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威鏡道系 勢力이 아니다.

威鏡道の 이와 같은 特質과는 對照的으로 平安道 方面에는 日本 殖民地時代부터 民族主義나 基督教이 번성하여 共產主義를 압도하고 있었다. 解放後 한때 北韓의 政治的 中心人物로써, 蘇聯軍이 金日成의 指導權을 確立하기 위해 監禁, 排除시켰던 曹晚植은 그 代表的인 人物이었다. 이러한 地域으로부터 有力한 共產主義 指導者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숙청된 幹部로써는 朴一禹, 張時雨 死亡者로는 崔庸健 등이 있고 現政權의 幹部로는 金日成, 金英柱, 金正一, 金聖愛 등 金日成 一家外에 孔鎭泰, 金萬金, 徐寬熙 정도이다.

이와 같은 由來와 背景에서 金日成이 經濟建設의 中心을 東部에서 부터 西部로 옮긴 것은 그의 1人獨裁體制가 한층 더 굳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主体思想을 經濟에 俱現함에 있어서 金日成은 經濟의 對蘇依存 一辺到에서의 脫皮를 그의 權力強化에 利用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國防에서의 自衛」는 金日成의 主体思想이 軍事面에 俱現된 것이다. 이것은 1962年 12月 10日 党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처음으로 提起되었다. 金日成은 이때 中·蘇紛爭의 深化와 美·蘇共存 그리고 韓國의 軍事革命에 쇼크를 받았다. 金日成은 『外來侵略者들과의 戰爭에서 外部의 支援도 重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補助的 役割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大개 나라의 主体的 力量이 準備되어 있지 않은 條件에서는 外部의 支援이 아무리 커도 革命鬪爭은 勝利할 수 없습니다』<sup>23</sup>고 「國防에서의 自衛」의 當爲性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곧 國防分野에서도 自力更生의 革命的 原則을 貫徹하여 自衛力을 더욱 強化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의 自衛路線은 古代로부터의 常識이며 獨立國家이면 다 그런 政策을 추구하고 있지만 北韓에서는 「自衛」도 金日成이 「創始」한 것으로 美化되고 있다.

金日成은 社會主義 國家들이 「共同의 仇敵」인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서 서로 도와주며 支持聲援하는 것은 共產主義者들의 「神聖한 國際的 義務」라고 말하고 오히려 社會主義國家들은 이와 같은 「國際的 聯帶性」을 強化할 것을 促求했다.

그러므로 金日成에게 있어서는 北韓이 蘇聯이나 中共과 軍事同盟을 맺고 援助를 받고있는 사실은 「自衛路線」과 全然 矛盾되지

註 (23)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44.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非共産主義 國家들이 美國과 軍事條約을 締結하여 共同의 安全을 위해 協力하고 援助를 받는 것은 「外勢」를 불러들이는 일이고, 「侵略」이고, 「軍事的 強占」이고, 「隸屬」이라고 金日成은 「규탄」한다. 金日成은 「平和를 愛護하는」 北韓의 맑스-레닌主義者들이 侵略戰爭을 일으킨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社會主義의 本質로 보아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宣傳한다. 따라서 6.25 戰爭도 「美帝」가 挑発한 것이며 北韓으로써는 「防衛戰爭」이었다고 한다.

스탈린의 戰爭概念에서는 戰爭을 「正義의 戰爭, 侵略的이 아닌 解放戰爭」과 「不正義의 戰爭, 侵略戰爭」으로 区分하고 共産主義者들은 後者は 反對하지만 前者는 支持한다는 立場<sup>②5</sup>을 固守해 왔다. 金日成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操作方法에 의하여 6.25의 奇襲南侵戰爭을 「美帝의 侵略」에 對抗하는 「朝鮮人民」의 「祖國解放戰爭」이라고 規定하면서 自身을 正当化해 왔고 또 軍事力 強化를 辯護하고 있다.

正規軍인 人民軍外에 59年1月 除隊軍人을 中心으로 勞農赤衛隊를 創設한 北韓은 62年12月の 勞動黨 第4期 第5回 全体會議에

---

註(24) 北韓은 1961年7月6日과 10日 各各 中共 및 蘇聯과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締結했다.

(25) <<Histoire du Parti Communiste(Bolchevck) de U.S.S.R.>> Moscow, 1949, p.186 參照.



서 ① 全軍 幹部化 ② 全軍現代化 ③ 全民武裝化 ④ 全國要塞化  
를 4大軍事路線으로 채택하고 70年4月 14歲—高校生들로 「붉은  
청년근위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正規軍에 있어서도 兵力과 裝備를 꾸준히 증강, 現在  
北韓軍병력은 육군만도 70만명이 되는 것으로 美國情報는 추산하고  
있다. ⑳

金日成은 또 軍事力の 物質的基礎는 重工業이라고 보고 年次的  
經濟建設計劃을 重工業 優先主義로 일관해 왔다. 이때문에 北韓의  
勤勞大衆과 農民들은 物質生活에서 폭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럴때마다 「主体思想」을 무기로하여 大衆의  
불만과 反對論을 눌러버리는 手法을 驅使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는 그의 「抗日武裝鬭爭」을 神話로 만들어 革命傳統을 계승하기위한  
政治思想教育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제5차 党大會에서 金日成은  
北韓이 軍事技術裝備面에 있어서는 發展된 나라들과 競争할 수 없  
다㉑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전쟁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現  
代的 武器나 軍事技術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㉒고 대담하게  
단정하고, 「人民軍隊」는 「政治思想的 優越性」에 의하여 軍事技術  
에 우세한 「帝國主義侵略」라 싸워 이길수 있다고 까지했다. ㉓

註(26) << AP 通信 >>, 1979年7月20日參照.

(27) <<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82.

(28) 上揭書 p.536.

(29) << 김일성 저작선집 5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473 ~ 474.

金日成은 統一問題에 있어서도 主体思想을 俱現, “共和国政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鬪爭에서도 自主的立場을 계속 확고히 견지할것”이라고 말하며 語句上의 매력으로 民族主義的 감정을 자극하고 對外的 선전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상 北韓의 主体思想의 凶式과 実虛을 검토하면서 한가지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을 「主体」로 완전히 염색하기 위해 「反復의 原利」를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1955년 12月28日 이래 金日成의 주요연설에는 「主体」, 「自主」가 장황하게 되풀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없고 「金日成의 忠臣」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이것이 「위대한 수령」 金日成의 創造物이라고 선전하며 金日成偶像化를<sup>30</sup> 가열시키고 있다.

朴昌玉이 「총결기 하였다」, 「총동원되었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sup>31</sup> 해서 “「총」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라고 비난한 金日成은 그자신이 지금 「主体」病, 「自主」病에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忠臣」들은 金日成이 不注意하게도 主体思想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같은 思想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sup>32</sup> 고 한 말을 덮어두고 있다.

註(30) <<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440.

(31) 上掲書, p:57.

(32) 日本毎日新聞 記者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對答, <<근로자>> 1972, 10호, p.2.

## (2) 中. 소 紛争속에서

이상과 같은 北韓의 主体思想은 스탈린死後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모스크바의 획일적인 통제가 弱화된 일반적인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中. 蘇紛争으로 兩分되자 여기에 本意아니게 말려들어 언젠가는 祭物이되는 愚를 犯하지 않으려했고 그러한 나머지 自主路線의 모색을 강요받았다고 하겠다.

金日成은 이러한 입장에 처한 金日成은 中. 蘇紛争을 北韓内部에서 그의 反對派를 제거 하는데 먼저 이용했다. 당초 소련派, 延安派, 国内派로 구성되었던 北韓政權을 6.25 動亂후 치열한 權力鬭争에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1955年 이래로 北韓에서 출판된 일련의 党文件들을 분석해보면 金日成은 자기의 独自の 權力基盤을 구축하기 위해 生死를건 鬭争을 전개해야 했다는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金日成이 主体思想을 처음으로 發說한것은 1955年 12月 28日 「党宣傳煽動 일꾼들」 앞에서 한 「思想事業에서의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함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는 여기서 「主体」없이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기만 하는』 党内的 소련派와 延安派, 특히 소련派에 대해 허다한 事例를 들어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朝鮮革命을...올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党思想事業에서 主体를 세워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업에서 혁명적 진리-맑스·레닌主義의 眞理를 체득하는 것이 重要하며 그 眞理를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게 適用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꼭 소련식과 같이 해야만 한다는 原則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中國式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sup>33)</sup>

金日成의 이같은 선언은 「朝鮮의 스탈린」인 그 자신이 흐루시초브의 緊張緩和政策의 영향으로부터 자신과 北韓을 방어하려는 명백한 意圖의 表示였다. 金日成은 소련을 다녀온 朴英彬 (당시 黨 宣傳煽動部長)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방향의 정책을 택하고 있으니 北韓도 「美帝國主義」를 반대하는 구호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한 견해를 맹렬히 반대하면서 그런 主張은 『우리 인민의 革命的 각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요 “美帝國主義者들은 千秋에 잊을수 없는 우리의 원수”라고 反美鬪爭을 재강조했다.<sup>34)</sup>

이때부터 金日成은 平和共存을 역설하는 모스크바와 戰爭不可避論을 주장하는 北京과의 理念論爭 틈바구니에서 피로운 外交曲芸를 부려야 했다.

흐루시초브는 金日成의 對蘇批判的 自主意識대두에 불만을 품고 平壤에 대해 어떤 강력한 통제를 가하려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

註(33) <<김일성선집 4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 336.

(34) 上揭書, p. 333.

一端을 後日 「로동신문」의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 그런데 남의 內政에 간섭하는데 습관이 된 일부사람들은… 언제나 兄弟黨들을 의심하며 兄弟黨들이 自己의 訓示대로 움직이는가, 自己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는가, 앎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兄弟나라 出版物들과 放送들에서 어느 한黨의 歷史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한나라의 映画를 잘보는가, 보지않는가하는 것까지도 따지면서 간섭하려 한다. 여기서는 벌써 平等과 互相尊重의 精神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大國排他主義의 表現以外에 아무것도 아니다.』<sup>35)</sup>

그러나 金日成은 소련에 대한 不滿을 明示的으로 表現할수는 없었다. 그는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소련과의 유대강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고 또 흐루시초브治下의 소련이 1957년 가을美國에 앞서 人工衛星(스피트니크)과 대북간탄도탄의 발사에 성공한 그 威力에 金日成은 압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1959년 1월 소련 공산당 제 21차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黨중앙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가운데 소련공산당내에서 권력투쟁을 전개한 끝에 확립된 흐루시초브체제를 전적으로 옹호하고 그에 의하여 추방된 말렌코프, 카가노비치, 물로토프, 불가닌 등을 反黨派라고 불렀다.<sup>36)</sup>

또한 그는 1955년 12月 28日 黨宣傳煽動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을

註(35) <<로동신문>>, 1963年 10月 28日.

(36) <<김일성선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224.

가당게 잊어버리거나 한듯 다음과 같이 흐루시초프政權에 대해 過剩的 아첨을 보였다.

『레닌이 創建한 소련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이며 항상 전세계 맑스-레닌主義 黨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소련공산당은 항상 우리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과와 豊富한 經驗은 우리의 사업에서 指針으로 되고있다』<sup>37)</sup> 金日成이 이처럼 이야기할 때는 내부의 權力鬭爭에서 일단 勝利, 더이상 소련파를 공격할 必要가 없어졌고 金日成 스스로는 内部權力鬭爭에서 어떤 自信感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金日成은 北京에 대해서도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金日成은 周恩來의 平壤訪問에 대한 答禮로 1958년 11월 中共을 방문했을때 人民公社의 성과를 축하했다. 金日成의 이같은 축하는 그가 이듬해 2月 北韓에서 시작했던 「千里馬運動」을 앞두고 大衆의 「革命的 熱意」를 최대로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金日成은 소련援助가 斷絶된 상태에서 1959年 9月 26日 中共政權樹立 10주년기념을 앞두고 人民日報에 「朝. 中人民의 戰鬪的 友誼」란 글을 寄稿, 6.25 동란중 中共이 제공한 軍事力支援과 戰後의 經濟援助를 강조하는 한편 과거로 소급하여 1930년대 朝鮮共產主義者들(自己自身을 가리킴)이 中共의 抗日聯軍에 가담하여 反日武裝鬭爭을 전개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했다.<sup>38)</sup>

金日成은 이때 소련과 中共에 대해 매우 細心하게 아첨을 均配

註(37) 上掲書, pp.244~245.

(38) 上掲書, p.454.

시켰다. 中共에 讚辭를 보내주고는, 곧 소련에 대해 더 높은 讚辭를 보냈다. 그는 「朝, 中人民이 거둔 빛나는 成果」는 “소련의 끊임없는 원조와 소련을 先頭로 하는 사회주의진영 국가인민들의 단결과 긴밀한 互相援助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모스크바의 권위에다 스스로와 北京을 종속시켰다. 이에 앞서 北韓의 최고인민회의는 58年 2月 19日 흐루시초프의 긴장완화정책은 「全적으로 支持贊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北韓을 59년 4月 李周淵이 이끄는 經濟使節團을 北京에 파견하여 4億2千만루블의 長期借穀을 얻는 經濟技術協定을 체결했고 10月 23日에는 北京으로부터 賀竜, 羅瑞卿 등의 巨物들로 구성된 軍事使節團을 받아들였다.

金日成에게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大分裂을 뜻하는 中, 蘇紛爭이 큰 충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스크바와 北京을 同時에 만족시키는 일은 매우 피로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이 尖銳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共產主義 巨國사이에서 讚揚의 均衡으로 安全한 非介入政策을 유지하려는 努力은 오래갈 수 없었다. 사태는 北韓이 어느한쪽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中, 蘇紛爭이 全世界에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은 1961年 10~11월에 열린 소련공산당 22차대회 때였다. 이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個人崇拜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非스탈린化의 煽動을 재개했고 알바니아 勞動黨의 指導部가 蘇聯共產黨의 정책노선을 반대하고 있

다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蘇聯共産黨에서 이미 추방된 「反黨主義 党派集團」 (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말렌코프等 )을 教條主義者들이라고 明示的으로 물면서 中共의 지도자들을 暗示的으로 비판했다.

이에대해 中共代表 周恩來는 蘇聯을 儀禮的으로 찬양하는 연설가 속에서 흐루시초프의 주장과 비난에 동조하지않고 오히려 당시 흐루시초프가 接近하고 있다. 美國 케네디 行政府와의 平和政策을 통박했다. 그리고 알바니아問題에 대해서는 『한兄弟黨에 대해 공공연히 일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統一에 이롭지못하며 問題解決에 도움을 주지못한다』<sup>39)</sup> 고 은근히 흐루시초프를 나무랐다.

金日成은 이때까지 中. 蘇紛爭문제를 党内에서 논의하는 것을 막아왔으나 이 重大한 社會主義陣營内的 문제를 더이상 덮어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同大會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그해 11월 26일 黨中央委員會 全体會議을 소집하고 「事業報告」를 하면서 『스탈린에 대해서는 蘇聯共産黨員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을 것이며 蘇聯에서 그의 활동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蘇聯共産黨의 内部問題에 속한다』<sup>40)</sup> 고 했다. 金日成은 자신의 統治作風과 密着되어있는 스탈린個人崇拜문제에 대한 자기입장을 회피하려 했던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곧 흐루시초프에

註(39) Chou En-Lai, "Speech at the XXII CPSU Congress, Oct. 19, 1961" Alexandor Dallin(ed),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A Documentary Record, 1961~63, p. 51

(40) 内外問題研究所, <<中·蘇論爭文獻集>>, 1963, pp. 475~6.



追從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했다. 알바니아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표면상중립을 지키려했고 흐루시초브를 敵對視하는 알바니아勞動黨의 指導部를 비방하지 않았다. 그는 61년 11月 28日 알바니아 解放 17주년기념일을 맞아 祝辭를 보내면서 「알바니아 勞動黨의 정확한 指導」를 치하했다. 이것은 北韓이 親中共便으로 기울어지는 현저한 증거였다.

이로부터 1년쯤지난 1962年 10월경 中·印國境紛爭과 쿠바의 蘇聯미사일 撤去事件이 일어나자 金日成은 본격적으로 反蘇·親中共路線을 취하기 시작했다. 1959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中·印國境紛爭에서 外見上 中立을 지켜오던 蘇聯이 62년 廢便에 들고 케네디의 剛的이요 강경한 요구에 흐루시초브가 굴복, 62년 10월 28日 쿠바로부터 미사일武器를 撤去한다고 발표하자 金日成은 蘇聯에 대한 信賴에 심한 懷疑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때 흐루시초브의 「修正主義」路線을 「티로徒黨」의 이름을 들어 間接的으로 공격했다. ④

金日成은 이제 흐루시초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背信者로 바라보게 되었다.

1962년 12월 北韓은 드디어 모스크바를 공식적으로 공개규탄하는 砲門을 열었다. 즉 체코슬로바키아共産黨 제 12차 大會에 北韓의 黨代表團을 인솔하고 참석한 李周淵은 大會席上에서 中共에

註(4) <<北韓政治論>>, 極東問題研究所, 1976, pp. 328 ~ 9 參照.

대해 蘇聯側이 가하는 비난을 보고 中共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일부 동지들이 國際共産党會議도 아닌 한 나라의 党大會에서 中國共産党和 中國人民들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단결을 악화시키며 國際勞動 계급의 勞動의 偉業에 큰 손실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일』<sup>(42)</sup> 이라고 蘇聯의 兪事를 공박했다.

이어서 63년 1월 獨逸社會主義統一黨(共産黨) 제 6차 大會에서 北韓은 對蘇 공격을 한층더 執拗하게 提起했다. 즉 同大會에 北韓의 代表로 참석한 李孝淳은 蘇聯側이 米리꾸민 시나리오에 의해 연단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는 연설문을 大會執行部에 제출했다. 이 연설문은 63년 1月 30日 平壤과 北京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한 句節을 살펴보면 『中國共産黨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일부래도』라는 것이 발견된다.<sup>(43)</sup> 이것은 분명히 蘇聯의 태도를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이해 1月 30日자 勞動신문 社說은 그러한 일방적인 中共비난 행위는 「敵들의 反中國合唱」에 加勢하는 일이라고 공박했다. 이때부터 北韓은 蘇聯을 社會主義陣營의 先頭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이해 10月 28日 勞動신문社說은 흐루시초프가 金日成에 대해 시도한 數多한 強壓策을 폭로하는 「社會主義 陣營을 옹호하자」를 외쳤다. 이것은 平壤이 이데올로기 戰線에서 蘇聯에 대해

註.(42) 内外問題研究所, <<中·蘇論争文獻集>>, pp. 477~480.

(43) 上掲書, pp. 481~485 參照.

宣戰布告한거나 다름이 없었다. 金日成은 이즈음 美·英·蘇간의 部分的 核実験禁止協定과 中·蘇會談의 決裂등의 국제환경속에서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路線에 不安을 느꼈고 毛沢東의 戰鬪的 革命主義에서 同類意議를 발견했던것 같다.

이 社說은 『어떤 사람들은 원조를 빙자하여 兄弟黨, 兄弟國家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의사를 강요하고있다. ....』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政治的 간섭과 經濟的 壓力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인연이 없는 것이다. ...』고 말했다. ④

여기서 「어떤사람들」을 종래 「일부동지」로 불리던 蘇聯이다. 北韓의 蘇聯에 대한 무모한 반발은 1964년 6月 16 ~ 23日에 平壤에서 열린 亞細亞經濟討論會議를 계기로 絶頂에 달했다. 中共의 배후주선에 의해 열린 이회의가 反蘇的 성격을 띤것은 당연했지만 이것은 곧 蘇聯과 北韓간의 이데올로기 紛爭의 決戰場이었다. 프라우다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것인가?」라는 논설이 회의를 비방하자 로동신문은 『왜 平壤 亞細亞經濟討論會議를 헐뜯으려하는가?』고 반격했다. 로동신문 社說의 한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프라우다가 보란듯이 조선땅에 준 원조의 「모범」으로 지적한 平壤 방직공장과 홍남비료공장의 일부직장들을 복구건설하는데 蘇聯人民들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두 공장들과 기타 공장들의 복구건설에 준 원조에서 당신들은 국제시장 가격

註(44) <<로동신문>>, 1963年10月28日字 社說.

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不銹鋼板을 주고 그대신 우리한테 수십톤의 금과 다량의 고귀한 유색금속과 원료들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 우리에게 준 원조에 대해 말할때 당신들은 그대신 우리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나날에 우리인민의 難苦한 勞動으로 이루어진 價値物들을 가져간데 대하여서도 응당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태도가 아니겠는가?』<sup>(45)</sup>

이것으로 金日成과 흐루시초브는 완전히 갈라섰다. 和解란 不可能한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얼마안가 金日成에게 機會가 왔다. 흐루시초브가 이로부터 두달후 돌연히 權座에서 쫓겨났다. 金日成에게는 실로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金日成은 모스크바의 브레즈네프 政權에 대해 여러측면에서 親善의 제스추어를 취했고 모스크바 또한 이러한 것들을 好意的으로 받아들였다. 金日成은 브레즈네프가 흐루시초브 보다는 좀더 강경한 對美姿勢을 취했고 또 브레즈네프의 統治스타일이 흐루시초프의 統治스타일보다는 좀더 자신의 것과 가깝다고 생각하고자 했을 것이다.

사실 브레즈네프는 執權이래 越南戰의 加熱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對外政策에 신중했고 對中共理念紛爭에서 北韓을 中共便으로 몰아넣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

---

註(45) 上揭社說

그리하여 平壤과 모스크바간에는 급속하게 和解가 이루어졌다.  
코시긴은 1965년 2月11日 하노이 訪問으로부터 帰國中 平壤에  
寄着 金日成과 회담하고 共同 코뮤니체를 발표, 61年 7月 체결  
된 「朝・蘇軍事同盟條約」의 意義와 役割을 재 강조했다.

이때부터 金日成은 中・蘇의 중간에서 自主的路線을 새로운 次元  
에서 실천에 옮기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金日成의 이같은 路線을 北京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  
1966년부터 69년까지 돌아부친 中共의 「文化大整風」운동은 毛  
沢東과 劉少奇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毛는 劉를 공격할때 「修正主  
義者」 「中國의 흐루시초브」라고 몰아대었다. 金日成은 여기서  
毛沢東으로부터 支持聲明 정도라도 강요당했을 것이다. 金日成은  
도처럼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對蘇관계 정상화를 다시 해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이 毛의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紅衛兵들의 大字報에 金日成을 『修正主義者』 「軍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말에서 나타났다.<sup>46</sup> 金日成은 蘇聯과의 寒冷한 關係  
를 해소하려하자 다시 中共과 어려운 關係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 金日成은 時間을 벌었다. 毛沢東이 文化革命 동  
안에는 北韓에 대해 강력한 制裁를 가할 能力이 없을 것이라고  
계산한 金日成은 文革의 完료를 기다려 中共측의 내뻗는 손길을  
그 자신으로써는 민첩하면서도 신중하게 붙잡았다. 中共과 北韓은  
69年代末 韓・日關係가 긴밀해지고 있는 현상을 「日本軍國主義  
의復活」이라고 규탄하는데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면서 양자의

註(46) <<北韓總鑑 45~68.>> (共產圈問題研究所), pp.248~249  
參照.  
-67-

「戰鬪的 友誼」를 새삼다짐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69年 10月 1日 崔庠健이 北京을 방문, 中共政權樹立 20주년을 축하하고 70年 4月5日에는 周恩來가 金日成의 초청으로 平壤을 방문했다. 그리고 越南戰이 끝나 베트남이 親蘇로 기울고 아시아에 蘇聯勢가 확대되자 金日成은 北京을 방문, 새로운 情勢를 中共當局者들과 검토했다.

毛沢東死後 中共에 華國鋒-登小平体制의 穩健路線이 들어서자 金日成은 이를 종래 尖銳化했던 中·蘇對立에도 어떤 變遷이 오는 것으로 보고 對中·蘇 「友好」에 均衡을 유지하는데도 힘 덜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나 金日成은 베트남·캄보디아戰, 中共-베트남戰등 아시아 共產圈內의 熱戰소용돌이 속에서 中共과 密着함으로써 다시 蘇聯으로부터 분노를 사고있다.

中·蘇紛爭은 실로 그에게 괴로움을 번갈아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서도 中共도, 蘇聯도 지금까지 北韓의 金日成에 대해 決定的인 制裁를 가하지 않은 것은 中·蘇두나라 사이에 北韓을 제편으로 끌어들이려는 競爭이 大國的인 慎重性과 忍耐에서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中·蘇는 北韓이 잠시 다른편으로 기울어진다고 해도 北韓의 힘의 限界性에 비추어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早晚間 다시 자기편에 아첨해올 것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金日成을 가혹하게 다룰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듯 싶다. 실제로 金日成은 中·蘇가운데 어느한편의 노선의 贊同해야 할 경우 언제나 다른 한편을 意識했고 또 장차 그편의 노선에도 贊同할 기회를 찾는 줄타기 의

교를 벌여왔다.

그리하여 國際政治의 거의 모든 問題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尖銳化할 異見對立을 보인 中·蘇양국도 北韓을 支持하는 一點에서만은 기묘한 協力關係로 轉變했다는 逆說的인 狀況이 나타났다. 近年 中·蘇양국은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非妥協的 政治鬭爭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韓半島問題에 관한 限 北韓을 支持하는 行動의 일치를 보여왔다. 1975년 11月8日 제 30차 유엔總회는 韓半島문제에 관한 韓國支持決議案과 北韓支持決議案을 동시에 채택하기에 이르렀는데 유엔總회에서 처음으로 北韓측 決議案이 채택된것은 中共대표 黃華와 소련대표 아킵, 아담 말리크가 서로 경쟁적으로 北韓에 票를 모아주기 위해 분주한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되었다.

모스크바-北京-平壤간에 형성된 이 3角關係에서 金日成은 피로우면서도 두 共產巨國의 對立과 競争을 逆利用하면서 자신의 獨自的 地位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金日成이 1977년 8月 유고슬로비아의 티토大統領을 平壤으로 초청한 것은 큰 意味를 갖는다. 티토의 平壤訪問은 1975年 金日成의 베오그라드 訪問에 대한 容訪형식이었지만 1968年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슬로바키아 侵攻때 北韓의 로동신문이 「背信者」로 규탄했던 그를 「國賓」으로 환영한것은 今昔之感을 不禁케 한다. 金日成이 近年에 들어 티토를 이처럼 존경하게 된것은 티토가 일찌기 共產圈에서 獨自路線을 구축, 지금은 非同盟그룹에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力量을 羨望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金日成은 티토를 환영하는 연설에서 『우리는 대통령동

지가 자립적인 노선과 정책을 실시하여 유고슬로비아 발전의 독자  
의 길을 개척하므로써 평화와 民主主義, 민족독립과 사회주의를 목표  
로 하는 세계진보주의적 인민의 共同偉業에 多大한 기여를 하고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sup>(47)</sup> 고 늘어놓았다.

여기서 金日成은 「支配主義反對」란 用語를 개발하여 中共이 反蘇  
外交政策을 폄해·쓰는 「霸權主義反對」대신 사용함으로써 親中共  
態度를 취하면서도 소련에 대해서는 誠意를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다.<sup>(48)</sup>

金日成이 이처럼 티토에 接近, 非同盟外交에 열을 올리는 것은 開  
拓途上 제 3 세계의 地位가 향상되어가는 國際的趨勢에서 스스로가  
非同盟그룹의 리더로 발돋움하면 中·蘇가 그를 함부로 다루지 못한  
 것이라는 計略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그렇게 되면 中·蘇로부터  
壓力을 적게 받으면서 자신의 1人獨裁體制를 더욱 다져갈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

註(47) <<코리아評論>>, 1979年2号, p.30參照.

(48) 上掲書 p.29參照.



### 第三章 <主体思想> 展開의 方向

#### — 金日成個人崇拜와 統一戰略 —

1973年 4月頃 勞動黨의 最高位幹部요 金日成의 심복인 吳振宇는 다음과 같이 썼다.

경애하는 首領 金日成同志께서는 일찌기 革命의 길에 나서신 첫 時期에 永生不滅의 主体思想을 創始하시고 그 장휘로운 빛발로 朝鮮革命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으며, 主体思想의 革命的 기치 밑에 피어린 抗日武裝鬪爭을 조직 영도하시어 強盜 日帝를 무찌르고 祖國光復의 歷史的 위업을 성취하시었다. 바로 이 榮光스러운 鬪爭의 나날에 우리黨과 人民이 永遠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革命의 뿌리이며 가장 고귀한 革命的 財産인 빛나는 革命傳統이 이룩 되었다. ①

이 말에 이어 그는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이 <人類解放鬪爭 歷史에서 처음으로 不滅의 主体思想의 革命的 기치 밑에 進行된 위대한 革命戰爭이었다> ②고 金日成을 世界革命史의 頂點에 추대함 함으로써 帝政로시아와 中國에서 자기에 先行하여 外國軍과의 가열 한 抗戰을 바로 主体的으로 되므로 革命의 勝利를 이룩한 레닌과 毛沢東의 權威를 자기의 밑으로 깔아 버렸다.

註(1) <<근로자>> 1973年 제 4호 P.18

註(2) 同上

이상의 吳振宇의 놀랄만한 禮讚은 金日成의 <主体思想>은 그에 대한 個人崇拜運動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5年 10月9日 勞動黨 창건 30週 기념대회에서 金日成 자신이 <主体思想>의 기원을 자기의 14歲 少年時節에까지 소급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人民의 革命鬪爭은 참다운 맑스-레닌主義의 기치 밑에 自主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出發點으로 된것은 1962年 打倒帝國主義同盟의 결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共產主義的 革命조직인 打倒帝國主義同盟의 결성은 우리 革命의 새로운 出發을 알리는 歷史的인 宣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黨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그는 朝鮮의 참다운 共產主義者들은 1930年代初에 <主体的인 革命路線>을 내놓고 日帝侵略者들에 대한 조직적인 武裝鬪爭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 <長久하고도 간고한 抗日革命鬪爭過程에 主体思想이 創始되고 發展豐富化되었으며 朝鮮共產主義運動안에 主体의 思想體系가 수립되었다>④ 고 있는 사실을 지어 제입으로 스스로를 神秘化하고 있다. 1955年 12月以前의 그 많은 北韓의 어떤 黨文藝와 金日成의 著作에서도 <主体>란 말조차 나오지 않고있다. 물론 日帝時代의 기록에도 그런것은 없었다.

註(3) <<김일성 저작선집>> 7, 평양, 1978年 P.206

註(4) 上掲書, P.207

金日成의 <主体思想>이란 것이 널리 선전된것은 그것이 党的 唯一思想体系로 定立되면서 부터다.

北韓의 党宣傳員들은 金日成을 「主体思想」의 化身으로 만들기 위하여 벌써부터 一八세의 그가 「1930年 봄 吉林감옥에서 나오신 후...朝鮮革命에 관한 主体的 革命路綫을 내놓으시었다」고도하고, 심지어는 1927년 즉, 그 나이 겨우 15세에 그가 조직했다는 『反帝青年同盟』의 구호는 <金日成원수님의 主体思想과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이 철저히 구현된 革命的이며 反帝國主義적인 鬪爭구호로서 朝鮮革命의 당면목적과 終극적목적을 밝힌 가장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 투쟁강령』<sup>⑤</sup>이라고 거침없이 쓰고 있다. 이 황당무제한 찬양은 1966년 労働党이 「自主性」을 宣稱하던때 말끝마다 「大國主義」, 「民族虛無主義」, 「事大主義」, 「教條主義」를 공격하면서 日帝下의 抗日武裝 鬪爭도 조선의 해방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革命과 사회주의 건설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 한 사람의 「고귀한 업적」에다 돌리는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나 北韓의 党宣傳員들과 역사가들은 52年 8月 15日 <<브라우다>>紙에 실렸던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스탈린에 대한 굴종적 아첨을 잊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人民의 성공적 해방 鬪爭에 있어서 제 1차적 的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兄弟的 소비에트 인민과 또 스탈린 동지가

---

註(5) <<組國統一>>, 1969年 12月 10日

몸소 우리 공화국에 주신 정신적, 정치적 원조이다. 스탈린 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慈父와 같은 배려를 베풀었다. 우리 인민은 스탈린 동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救援者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將軍稱呼, 그의 유격대 경력의 찬양, 「英明한 指導力」 宣傳 등 1945年 10月 중순이래로 朝鮮軍政當局에 의하여 体系的, 集中的으로 시작되었던 個人崇拜運動은 스탈린사망 이후에는 金日成 자신과 그의 黨僚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계승·발전되었다. 그가 지난 29년 동안 北韓社會를 오직 자기 한 사람의 이름에서 지배해온 것과, 노동당과 「共和國」을 창건 했다는 것, 「美帝國主義」의 침략에 대항하는 「祖國解放 戰爭」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이끌었다는 것, 社會主義基礎를 건설했다는 것, 黨의 자주노선을 확립한 것, 社會주의의 「地上樂園」을 실현했다는 것, 北韓을 「自主的 社會主義 工業國家」로 발전시켰다는 것 등 黨이 내세우고 있는 모든 「빛나는 성과들」 중 어느 하나도 金日成의 이름과 결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北韓에서 간행된 선전자료와 黨記錄을 풀어보면 黨이론가 宣傳員들이 北韓 人民과 兩韓의 大衆, 그리고 전 세계 앞에 다 부각시키려는 金日成의 映像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把握된다.

① 그는 日帝統治下의 암흑시대에 民族解放鬪爭에 진정으로 헌신 분투한 絶世의 애국적 영웅인 동시에 위대한 공산주의 자였다는 것.

- ② 그는 상당한 기간 신중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간고한 抗日革命 鬪争의 경험을 통해 朝鮮革命史上 최초로 진정한 마르크스-레닌 主義黨을 창건한 革命의 「天才的」 英才라는 것.
- ③ 그는 1930년대 초에 이미 오늘의 北韓政權의 모체인 「인민 정부를 民族統一戰線路線에 입각하여 滿洲에서 조직한 역사적 애국 자요, 北韓의 現 「共和國」은 그의 正統的 계승자라는 것.
- ④ 그는 民族的 명분에서 보나 맑스-레닌主義의 이념에서 보나 南北韓을 통하여 唯一無二의 정통적 지도자라는 것.
- ⑤ 朝鮮은 소련군에 의하여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주로 金日成지휘 하의 「朝鮮人民革命軍」(實在한 일이 없음)의 役割에 의하여 해 방되었다는 것.
- ⑥ 그는 한국전쟁시 「美帝」의 침략군을 격파함으로써 이것이 물 락하는 시초를 열어 놓았다는 것.
- ⑦ 그는 落後하고 전쟁에 파괴되었던 北韓에서 資本主義國家들이 수백년에 걸쳐서 이룩한 工業化를 불과 10년에 수행하는 世紀的 기적을 창조했다는 것.
- ⑧ 그는 外勢의 간섭을 받는 일없이 主体를 견지해 온 가장 자 주적이오 독창적인 南北人民의 유일한 民族的 영도자라는 것.
- ⑨ 그는 사회주의 革命과 사회주의 建設을 독창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식민지, 半植民地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나가는 가장 올바른 길을 明示해준 「인류의 태양」이라는 것.
- ⑩ 그는 과거에 抗日 武裝鬪争과 抗美救國鬪争을 차례차례 승리에

로 이끌었던 것처럼 祖國統一을 위한 鬭爭도 반드시 승리에로 이끌 것이 틀림 없다는 것...

이상을 立證, 明示하기 위해 北韓의 黨文化 일꾼들은 과거에 관한 歷史的 事實들을 誇張·歪曲·削除·造作하면서 그의 경력을 웅장한 파노라마로 전개시켜 왔고, 그 자신을 가장 감동적인 전설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의 극히 모호한 소년시절과 유격대원 생활은 회상기·소설·시·음악·연극·그림·가극의 형식으로 예찬되어왔다. 그는 해방후의 鬭爭을 통해서도 「革命的 天才」로서 또는 가장 「創造的」인 맑스-레닌主義의 思想家·理論家로서 不可誤謬性을 실증해온 「위대한 수령」으로 우상화되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령의 우상화 작업은 66年 8月中·蘇對立의 渦中에서 自主 路線을 선포한 후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加重上昇되었다. 그리하여 北韓社會에서는 전체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강조되었고, 어떤 군중대회 기념식, 회의에서도 金日成의 가장 정확한 영도와 뛰어난 정치적 역량에 대해 열광적인 아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는 날이 갈수록 엄격하게 儀式化, 規格化되고 있다. 가령 北韓의 放送出版物들이 그의 일생적인 행사에의 참석광경을 묘사한 것을 보면 古代帝王의 행차와 같은 그지없이 장엄한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이와 같은 최대의 미사여구와 아침에 가득찬 찬사는 공식석상에서 으레히 천편 일률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근년에는 다시 더 첨가되어 그를 「희망의 등대」

「우리시대의 전설적 영웅」, 「白頭山の 정기를 타고 난 위대한 수령」, 「民族의 태양」, 「奇蹟의 영도자」, 「역사의 거임, 심지어는 세계인민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다. 그의 「主体思想」이 열광적으로 찬양되는 분위기 속에서北韓의 党宣傳家들은 毛沢東이 圖式化한 「反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의 理論도, 코민테른의 공식적인 統一戰線」전술도, 멀리는 디미트로프의 「人民戰線」에서 유래하고 스탈린이 定立한 大戰後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綫도, 毛沢東의 특유한 獨創인 「自力更生」의 革命精神과 「群衆路綫」의 지도 방법도 모두 金日成에 의하여 創始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先驅的 公산주의자의 명성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

金日成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党的 自主性을 공포한 것은 66년 8月12日 이었지만 그후 党的 宣傳文件은 수령이 「1930년 봄 吉林 감옥에서 나오신 후 더욱 무르익히시었던 朝鮮革命에 관한 主体的인 革命路綫을 내놓으시었다」<sup>⑥</sup>고 하니, 그의 自主性은 사실은 1966년 보다는 벌써 36년 전에 확립된 것이 아닐수 없다. 그때의 그의 나이는 겨우 18歲! 이 허황한 政治的 창작에 관해서는 굳이 論評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황당무제한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末北韓의 會寧, 淸津, 羅南, 咸興, 平壤 등의 일대를 해방시킨 것은 다름아닌 金日成의 「朝鮮人民革命軍部隊들」

註(6) <<祖国統一>>, 1969年 10月8日

이었고, 그의 강력한 타격 앞에 「일제놈들의 <<철벽의 방어전>>은 흠담처럼 무너졌으며 100만의 關東軍도 거품처럼 사라졌다」<sup>⑦</sup>는 어이없는 虛言이다. 이렇게 金日成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생지인 萬景台는 「朝鮮革命의 요람」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그가 살던 초가집은 물론 한 그루의 나무, 한개의 바위, 조그만 공터까지도 그의 어린 시절과 관련시켜 역사적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平壤의 「外交出版社」는 金日成의 著作, 권위등을 다량 간행함으로써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 전통과 「主体思想에 뿌리박고 있다는 北韓의 社会主義 革命과 社会主義 建設을 실새없이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비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 日本등 선진국에서도 적극화되어 가고 있다. 73년 한해만 해도 金日成의 「天才的 勞作들」은 세계 수십 개 나라들에서 30여개 民族語로 수천만부나 번역 출판되었으며 무려 億萬部를 훨씬 넘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출판물에 게재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sup>⑧</sup>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近年 金日成의 「主体思想」을 학습하기 위한 「金日成동지 勞作研究所」·「金日成동지의 위대한 主体思想研究會」·「金日成동지 노작애독회」·「金日成圖書館」등등의 이름을 가진 조직들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각처에 나타나고 있는 현

註(7) <<祖国統一>> ,

註(8) <<근로자>> , 1974年 4호



상이다. 그리고 72년 12月에는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에서 16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政治活動家들이 「全 아프리카 金日成동지 主体思想討論會」를 연데 뒤이어 73年 11月에는 「中近東 및 아프리카 地域 主体思想에 관한 科學討論會」가 소말리아 共和國 수도에서 그곳 정부의 주최하에 열렸다.

이러한 종류의 「討論會」는 東京에서도 베이루트에서도 알제리에서도 있었다. 그리하여 北韓의 「社會主義 地上樂園」을 비취고 있는 「民族의 태양」은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인류의 태양」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大革命>이나 「社會主義 大建設」을 표방한 「속도전」이 전개되면서 北韓에서는 個人崇拜運動이 더욱 활발해져 갔다. 黨에 의한 일체의 비판세력에 대한 규탄을 의미하는 「修正主義·教條主義」 「事大主義」·「官僚主義」·「主觀主義」·「要領主義」·「形式主義」 「機會主義」등등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 속에서 모든 당원들은 「主體型的 참다운 共產主義 革命가」, 다시 말하면 바로 金日成型的 共產主義者가 되어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요즘 金日成의 「抗日 武裝鬪爭」은 위대한 主体思想을 지도 지침으로하여 전개된 「世界 最初의 民族解放革命戰爭」으로까지 格上되었고, 이제 그는 「우리 人民의 數千年 역사에서 처음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이란 아첨을 받기에 이르렀다.

종래의 唯一思想體系에 상응하도록 「唯一的 領導」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 지는가 하면, 金日成은 1930년대에는 日帝를, 1950年代에

는 「美帝」를, 즉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물리치신 전설적 영웅」이라는 감동적 표현으로 예찬되고 있다. 그는 지금은 초인적 지혜와 능력을 보유하는 절세의 애국적 지도자로 절대화, 신격화되고 있다. 黨의 한 宣傳員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양을 위한 힘의 중요한 원천은 어떤 물질적,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모든 일군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충성심에 있다」<sup>9)</sup>고 까지 서슴치 않고 말하면서 모두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親衛隊, 決死隊가 되라고 호소한다.

또 다른 宣傳員은 다음과 같이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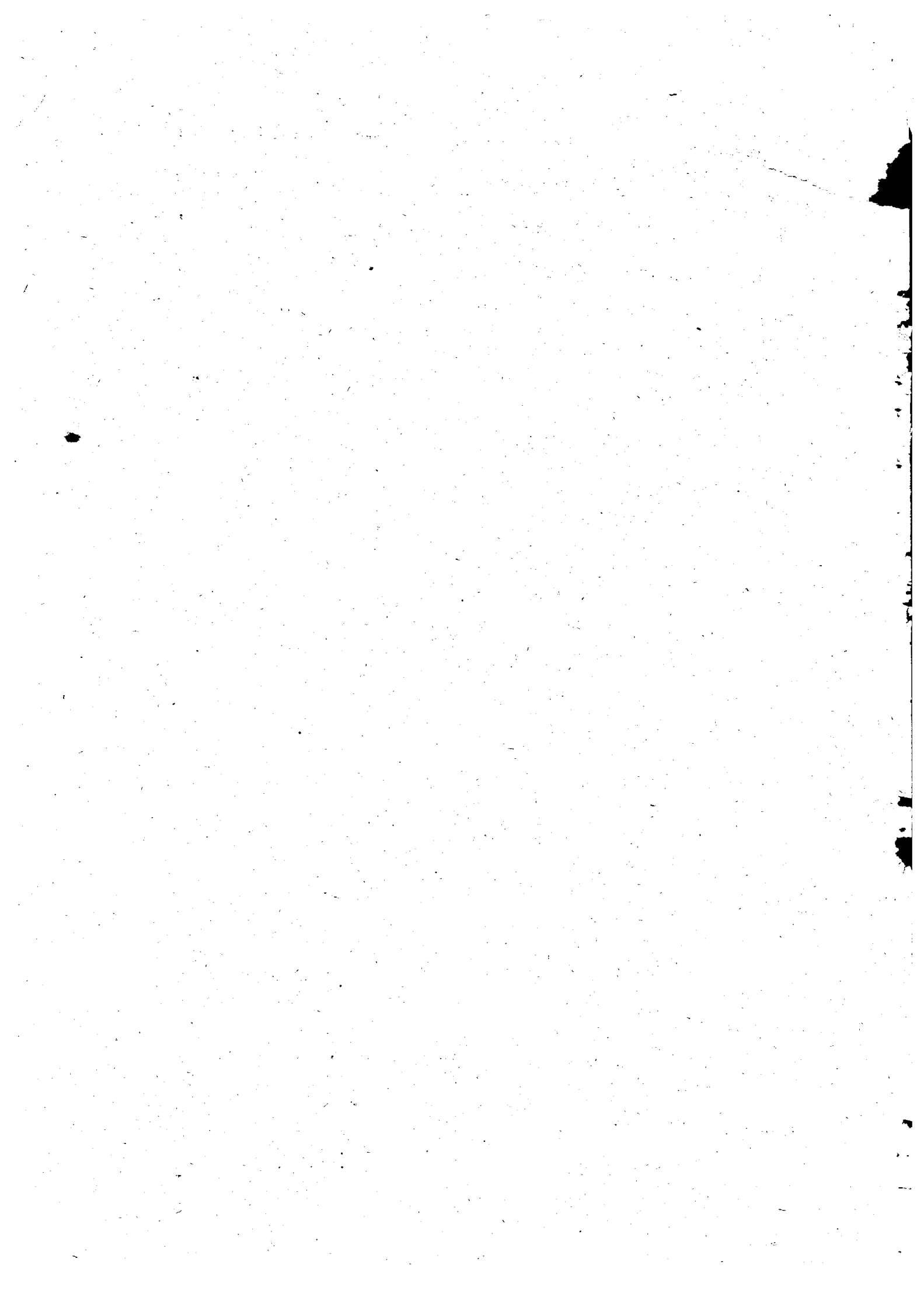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을 튼튼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집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과 革命的 自覺을 가지고 鬪爭할 때 社會主義 大建設에서는 빠른 속도가 창조될 수 있으며 승리가 이룩될 수 있다.<sup>10)</sup>

金日成 個人崇拜은 이제 거만하고 교활한 독재자의 權力心理와 밀착되어 大衆操作으로써 앞에서 예시한 수다한 反理性的, 反人民的, 反知性的, 양태를 연출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權力과 榮華 그 자체에 도취한 옛 專制君主의 단순한 광란극과는 意味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의

註(9) <<근로자>>, 1973生 3호

註(10) <<근로자>>, 1974年 9호

<主体思想>을 그에 대한 個人崇拜運動을 통하여 絶对化, 神秘化하고 있으며 이것을 国家的 指導原理로 만들려 하고있다. 이것은 独裁權力이 빠지기 쉬운 自己陶醉의 現象으로도 理解할 수 있지만, 主体思想의 宣傳, 金日成의 神格化로써 그를 南北統一의 유일한 求心点으로 삼으려는 政治戰略이 깔려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A STUDY OF THE "IDEA OF JUCHE" IN NORTH KOREA (resume)

### (1) Environmental situation for the emergence of "juche".

It was on December 28, 1955 that Kim Il-song, the General-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and the North Korean President (Jusok), for the first time raised officially the question of establishing "juche" (autonomy or self-identity) in the party. Based on "juche" he declared the "independent party line to the outside world in the editorial of the Rodong Sinmun, the party organ, of August 12, 1966. When he mentioned "juche" for the first time, it was nothing but an unripe self-consciousness or a fragmental thought for political tactics. As time passed by, it was more theorized and substantially enriched in gradual process, finally assuming the form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of the party".

Originally, Kim Il-song took up the question of "juche" as an ideological weapon to protect and consolidate his leadership of the party against "factionalists". The domestic necessities for emphasizing "juche" was inseparably connected with drastically changing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It was with such background as Stalin's death in 1953, as an epoch-making political thaw in the Soviet Union, as Khrushchev's

de-Stalinization dr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and as the Sino-Soviet ideological conflict since 1956 that the question of "juche" emerged in North Korea. In the eventful years following the death of Stalin, intense power struggles were developing among factions within the WPK.

With the death of Stalin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changed from monolithism to polycentrism in its organizational feature. Respective communist countries dared to try independent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Marxism-Leninism differ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Soviet Union. As a result, a unified, effectively controlled communist movement of the world with a single center and a centralized organization was about to break in pieces, and this was gradually replaced by national communist movements which have their own centers and peculiar national interests. In many countries communist leaders who were in power hoped to be looked on as national leaders of their own countries, while officially committing themselves to the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y respectively put emphasis on their special national culture, peculiar conditions of history and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 etc. so that they can enjoy the support of their own people above all else.

As the sino-Soviet dispute was deteriorating, most of the communist parties of the world, fishing in troubled waters, could find limited fields for autonomous activities unless they were occupied by foreign troops. Thus, Belgrade, Buchrest, Hanoi or Havana, claiming each one's separate, independent path, struggled for attaining the position of national center of its own communist movement. In the aftermath of disintegrating internationalism of Marxist-Leninist camp, Kim Il-song was also pursuing his own ideological autonomy and "creative" policy. The process of establishing "juche" in North Korea was the process of disintegration of the monolithic world communism.

(2) Schema of Kim Il-song's "idea of juche".

Since his declaration of independent party line, Kim Il-song has elaborated the theory of "juche" a posteriori. He continued to stress on the "revolutionary spirit of self-reliance"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independent party line. From this spirit his party theoreticians worked out four principles----"juche in ideology", "independence in politics", "self-sustenance in economy" and "selfdefence in national defence". Under the pretext of lacking "juche", he purged a number of party leader of party leaders allegedly leaning

towards Moscow or Peking. They were branded "modern revisionists" if sympathetic with Khrushchev, and denounced "dogmatists" when friendly to Peking. Both were also criticized "flunkyists" or "national nihilists" if they suspected Kim's radicalism (rapid industrialization and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or opposed his personality cult of Stalin's style.

Though Kim Il-song's "idea of juche" is enshrined as "immortal" currently in North Korea, it is neither founded on a profound ideological system nor given any creativity. To begin with, "juche in ideology" was a mere outcry without any philosophical explanation, when it was emphasized to party cadres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1955. Its motivation was to strengthen his dictatorship Stalinist in its basic character, and potentially threatened by pro-Soviet or pro-Chinese group within the party in the milieu of de-Stalinization drive. Later it came to be regarded as a guideline for thought reform on the pattern of revolutionary spirit as taught by Kim Il-song. In recent years his "idea of juche" degenerated to the extent that every individual member of North Korean people has to be remoulded in the personal image of Kim Il-song, the "great" revolutionary Leader.



Kim Il-song has been making utmost efforts to transform the North Korean people into a "Socialist nation" after his own image. For this purpose he carries out the task of "revolutionization and workingclassization (proletarianization) of the whole of society" by intensive ideological revolu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communist society, he said, the Korean people should occupy the "ideological fortress" as well as the "materialistic-technological fortress". Unless the party have remoulded all the people by the communist ideology of "juche" type, it cannot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communism. Recently he proposed another goal of political task, that is the "juche-ification" of the whole of society; it means the throughgoing remould of whole North Korean society to meet the demand of his "idea of juche".

As afore-mentioned, "independence in politics" was tactically propagated to hurl denouncements at anyone of his rivals within the party, and to prevent the party from being influenced by Soviet Union or mainland China. By this catchword he attempted to consolidate his leadership of the party and to achieve more autonomy in the communist world. Thus,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in politics" could be characterized as aiming at two targets simultaneously---both monolithism internally and

polycentrism internationally.

Kim Il-song's principle of "self-sustenance in economy" was based on his thought that "economic independence is the material basis for political independence". As leader of a developing communist country, he has laid a particular stress upo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for attaining national independence. He also used the slogan, "self-sustenance in economy" as another ideological weapon to attack the "dogmatists" or "revisionists" within the party who were against his ultra-Stalinist economic policy for Socialist construction. The catchword was used to defend himself from Khrushchev's or Mao's attempt to interfere with North Korean domestic affairs by economic aids. According to Kim Il-song, "the anti-party elements within the party and their supporters abroad, revisionists--great-power chauvinists, lined up as one in opposition to our party and --- in an attempt to overthrow the leadership of our party and government".

The policy of "self-defence in national defence" is said that it is the embodiment of the spirit of self-reliance. From the rationale of this policy, Kim Il-song has been mobilizing as much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as possible to strengthen the "revolutionary democratic basis"(North Korea).

"To turn the whole army into a modern army", "to arm the whole people", "to fortify the whole country" and "to turn the whole army into an army of cadres" are four policies of the party's independent military line, and they have been carried out with unprecedented efforts. By these policies, North Korea is being militarized to the maximum extent. The more political and social regimentation is pushed forward, the more ideological work is intensified.

(3) Personality cult---the course taken by the "idea of juche".

North Korean party propagandists write that the idea of juche was created for the first time by Kim Il-song in the revolutionary history of the world. It is also said that his "idea of juche" and "revolutionary spirit of self-reliance" were thoroughly embodied in the program of the Anti-Imperialist League organized by Kim Il-song as early as in 1927 (at the age of fifteen!) in Chirin, Manchuria. He is now hailed the most patriotic hero in Korean history, and worshipped as a "genius of revolution", "the most creative Marxist-Leninist thinker and theorist". He is also idolized as having verified his infallibility since teen-ager. The propagandist works for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song are evermore vigorously accelerated not only in North Korea, but also at every part of the world if it is possible.

In implementing his independent party line Kim Il-song has been going through twists and turns in his relationships with Moscow and Peking. He, as common ally of Moscow and Peking, played off one senior comrade against the other and gained increased autonomy together with continued economic-military aids from both sides, In the course of achieving independency he has purged all the "antiparty elements", "factionalist counter-revolutionaries", "opportunists", "flunkyists", "national nihilists" and etc. Within the party. On the other hand, the two contending giants, Moscow and Peking, have been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 their support of North Korea to win over Pyongyang on their respective sides. In order to manipulate the two allies for Kim Il-song, however, he needs more power, far stronger leadership and more personality cult; that is the corollary of Kim Il-song's "idea of juche".